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0년 1월 6일 월요일
etoday.co.kr

제2299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BanK!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갤S20·뉴 폴더블폰' 내달 11일 美서 공개 12

전경옥 선장 "女선장이 뉴스 되지 않아야죠" 21

▼ 코스피(3일 (전주 대비)) 2176.46(-27.75P)
▲ 코스닥 669.93(+8.69P)
▲ 환율(달러당 원화) 1167.10(+5.6원)
▼ 금리(국고채 3년물) 1.270%(-0.10%P)

'노동 경직성'에 발목 잡힌 韓…"일자리 절벽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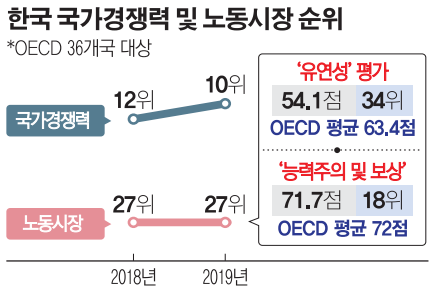
스페셜 e리포트

2020년을 맞아 각 언론사에서 발표한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추진해야 할 정책 제1순위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이 늘고 청년·여성의 일자리 숫자 확대는 요원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그대로 둔 채로는 우리나라의 성장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노동시장 경직성이 해소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2.9%포인트(P) 더 상승한다. ▶관련기사 3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661만4000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3.0%에 달한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등락을 반복했지만 2014년을 저점(32.2%)으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었으며 30대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비정규직이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30대 후반 기혼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이 3만9000명 증가했다. 이는 여성이 결혼과 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을 빠져나

한국 국가경쟁력 및 노동시장 순위
*OECD 36개국 대상



※출처 : 세계경제포럼(WEF)

노동 유연성 OECD 중 꼴찌
비정규직만 양산 기형적 구조
경직성 해소 땐 GDP 2.9%P↑
정책 속도조절 등 해법 절실

갔다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재진입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문제도 새롭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조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 플랫폼노동연대와 라이더유니온이 만들어졌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 가속할 전망이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소위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일자리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해 그만큼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낮은 임금에 대한 소득 부족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 후생 복지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상생형 일자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노동계와의 소통 부족으로 삐걱대는 모습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한국의 전반적 국가경쟁력 순위는 10위였지만 노동시장 순위는 27위에 그쳤다. 노동시장 평가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인 '유연성'과 '능력주의' 중 '유연성' 항목은 OECD 34위로 꼴찌 수준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국내외 불확실한 경기여건으로 1%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노동 경직성이 일자리 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정책의 속도 조절과 성숙한 노사관계, 해고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美·이란 무력 충돌 '일촉즉발'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인 거셈 솔레이마니를 공습, 살해하면서 중동 지역이 일촉즉발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미국 제82공수사단 소속 장병들이 4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브래그 기지에서 중동행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위). 아래 사진은 이라크 남부 나자프에 있는 시아파 성지 이맘 알리 영묘에서 치러진 솔레이마니 등 시신 운구 행사 모습. ▶관련기사 9면 포트브래그·나자프/로이터·AP연합뉴스

운전대 놔도 알아서 차로 유지

자율주행車 7월 판매 허용

세계 첫 '레벨3' 안전기준 도입

7월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손을 떼고 지속해서 차로 유지가 가능한 자율주행차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안전기준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 유지 기능을 작동하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린다. 그러나 이번 부분 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 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이 안전하게 차로 유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지 성능에 따른 최대 속도 및 속도에 따른 앞 차량과의 최소 안전거리를 제시했다.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국세청, 전두환 은닉재산 캔다

아들 전재국의 '성강문화재단'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이 최근 골프 회동과 12·12 자축 호화 오찬으로 논란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050억 원을 징수하고자 은닉 재산 추징을 위해 전두환 일가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5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성강문화재단에 투입, 몇 달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가 대표인 성강문화재단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자 군인 출신인 이규동 씨가 장학사업 명목으로 설립한 재단이다.

성강문화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는 다음 달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Solution

; 1. (문제, 곤경의) 해법, 해결책 2. (퀴즈, 수학 문제의) 해답, 정답
[sə'luːʃn]

77억명 모두가 고갈 걱정없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어떤 것일까?
화학은 더 친환경이 될 수 없을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첨단소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당면한 수많은 질문들에
한화솔루션은 기술에서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화케미칼, 한화큐셀, 한화첨단소재의 기술력을 모아
가장 친환경적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며
내일의 가능성을 이어가는 첨단의 솔루션으로.

우리는
오늘의 질문에
내일의 기술로 해법을 찾아내는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은 한화케미칼, 한화큐셀, 한화첨단소재가 만나 탄생한 새로운 회사의 이름입니다.

금융지주사 CEO 2人의 새해 경영전략

"R는 R로 극복해 나갈 것"

〈경기침체〉 〈회복탄력성〉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조직 변화 위한 '리더의 결단력' 강조
'F.R.E.S.H. 2020' 그룹 방향성 제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일 '일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금융그룹

"R(Recession·경기침체)는 R(Resilience·회복탄력성)로 극복해야 한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2~3일 경기도 용인시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2020년 신한경영포럼'에서 그룹의 전략방향성을 'F.R.E.S.H. 2020'으로 정의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F.R.E.S.H. 2020은 Fundamental(기초체력), Resilience(회복탄력성), Eco-system(디지털 생태계),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 Human-talent(핵심 인재) 등 그룹이 지향하는 바를 나타내는 열쇠 말의 앞글자를 따 만든 합성어다.

조 회장은 이 중 R(회복탄력성)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 그는 "신한을 향해 R(경기침체)와 D(Deflation·디플레이션)라는 회색 코뿔소가 돌진해 오고 있다"면서도 "회복탄력성이 있다면 이전보다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회색 코뿔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실제로 현실화하기 전까지는 간과되는 위험 요인을 의미한다.

조 회장은 R(경기침체)를 R(회복탄력성)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과감한 결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솔선수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자세, 성공의 경험과 성과의 축적 등을 리더의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이날 △고객중심 One Shinhan 체계 강화 △시장선도 비즈니스 모델 확대 △고도화된 Global 성장 전략 추진 등 7가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김범근 기자 nova@

"ESG 기반 지속경영 선도"

〈환경·사회·지배구조〉

윤종규 KB금융 회장

전문가 특강 통해 성과 복기·대안 마련
8개 부문별 토의로 사업 구상 구체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3일 용인연수원에서 경영진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B금융그룹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그룹의 새해 전략 방향성에 대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반의 경영체계를 신속히 체화해, 지속가능 경영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달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KB증권 용인연수원에서 열린 '2020년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모든 경영진이 같은 경영전략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도약해 나가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에 개최한 워크숍에는 윤 회장을 비롯한 각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속가능 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반의 그룹 전략 방향성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2020년 금융업 전망' 및 '시장에서 바라보는 KB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외부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직원들은 특강 시간에 지난 경영 성과를 되돌아보며, 2020년 경영전략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해결책을 고민했다.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됐다. 경영진은 디지털, WM, CIB, 글로벌, 자본시장, 개인고객, SME, 보험 등 총 8개 사업 부문별 분임토의를 통해 각 사업 부문별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KB금융 관계자는 "그룹 경영진이 모여 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었다"면서 "경영진이 중점 추진 사업별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최종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직장인 3명 중 2명, 연말정산 '평균 58만원' 환급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

5명 중 1명은 84만원 추가 납부
최종 결정세액 '0원' 722만명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총 1858만 명 연말정산 신고)

환급인원	총환급액(원)	평균환급액(원)	추가납부	총추가납부액(원)	평균납부액(원)
1250만 8569명	7조 2430억	58만	351만 3727명	2조 9680억	84만

※ 출처 : 국세청 '2019년 국세통계연보'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평균 58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명 중 1명은 평균 84만 원의 세금을 더 냈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근로자의 환급액은 평균 276만 원 이었고, 이들 가운데 1123명은 결정세액이 없어 근로소득세를 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858만 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 급여는 364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다양한 면세기준과 공제를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가 1원이라도 부과된 사람은 1136만 명(61.1%)이었고, 나머지 722만 명(38.9%)은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 연말정산 결과 전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1858만 명) 가운데 67.3%(1250만 8569명)는 세금을 돌려받았다.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1년간 미리 뗀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이들의 환급 세액은 총 7조2430억7400만 원, 1인당 평균으로는 58만 원이다.

반면 18.9%(351만3727명)는 앞서 징수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어 연말정산을 통해 총 2조9680억4300만 원을 추가로 냈다. 추가 징수 대상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84만 원을 더 냈다.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근로소득자(1136만 명)의 소득별로 환급액·추가납부액을 나눠보면, 연 급여가 1억 원을 초과하는 80만538명 가운데 56.9%(45만5568명)가 1조2560억3800만 원, 1인당 평균 27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억대 연봉자 가운데 36.7%(29만4088명)의 경우 1조5779억6100만 원을 추가 납부했다. 평균 537만 원이다. 연봉이 10억 이상인 1576명은 1645억3300만 원을 납부해 평균 1억5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봉이 1억 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으로 산출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1123명이나 있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호봉제·전일제만"… '콘크리트 신념'이 고용 걸림돌

'제로섬' 된 노동시장

2000년대 이후 한국 노동시장은 제로섬(zero sum)이 됐다. 기존의 일자리가 유지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보단, 하나의 일자리가 사라져야 새 일자리가 생겨나는 구조다. 그나마 일자리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사업체가 늘어서다. '질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는 대기업들은 최근 상당수가 신규채용을 중단하거나 기존 인력을 줄이고 있다.

구조적으로는 호봉제로 대표되는 임금체계와 경직적인 고용 형태가 '일자리 상생'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호봉제는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임금체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제를 운용하는 사업체 비중은 65.1%였다. 2009년(72.2%)에 비해선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기업 실적이나 근로자별 성과와 무관하게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이는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성과연봉제에서 연봉이 오르거나 직무급에서 직무 이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게 스텝 업(step up)이고, 임금단체협상 등으로 사업체 내 전체 근로자의 임금이 보편적으로 오르는 게 베이스 업(base up)인데, 호봉제는 유일하게 매년 스텝 업과 베이스 업이 함께 이뤄지는 임금체계"라며 "고속 성장기에 베이스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 고령화와 맞물려 기업들의 부담이 급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1989년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5.6%였는데, 전체 사업체의 임금은 평균 15.2% 올랐다. 1990년을 전후로

과거 고속 성장기 임금·채용 체계 이어져
기업 인건비 부담 상승… 신규채용 중단
해외서는 전일제-시간제간 이동 가능
유연한 고용 위한 제도 마련 절실

급격히 오른 임금 수준은 외환위기(1997년) 이후에도 유지됐다. 이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상승, 다시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졌다. 나머지 필요 인력은 주로 비정규직으로 메워졌다. 오 소장은 "초임 대비 20년 근속자의 임금(연공성)이 2.5~3배인데, 이는 중고령 근로자 한 명이 나가면 신규 근로자를 2~3명 뽑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일제 위주의 경직적인 고용 형태도 추가 채용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다.

산술적으론 주 40시간제 근로자 2명이 20시간제로 전환하면 주 40시간 일자리 하나가 추가로 생겨나지만, 현장에선 전일제·시간제 간 이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제는 정규직이라고 해도 전일제와 구분된 절차로 채용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도 2017년 49.5%에서 지난해 46.1%, 올해 39.9%로 축소되는 추세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독일과 네덜란드에선 기존 전일제 근로자가 출산·육아 후 시간제로 이동했다가 자녀가 크면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고, 스웨덴에선 남성도 동일하게 전일제·시간제 간 이동이 가능하다"며 "우리는 전일제가 곧 정규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전일제를 선호하고, 결국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근로자들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르바이트 같은 시간제 비정규직에 재취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시간제 정규직 활성화는 노사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노조로선 퇴출 목적으로 시간제 전환이 악용될 것이 걱정이고, 기업으로선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복리후생비 등 직간접 노무비 증가가 부담이다. 이 교수는 "시간제 활성화를 위해선 우선 시간제 전환이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이 먼저 기존에 시간선택제로 불렸던 단절된 시간제를 전일제와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정부 주도 상생형 일자리 '毒'될 수도

고용창출 위해 곳곳에 만들지만
불황땐 지엠처럼 대량실업 우려

노사협력 상생 일자리 발굴하고
정부는 지원·중재 역할 집중해야

정부가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이하 상생형 일자리)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동자와 기업, 정부·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이뤄지는 상생형 일자리가 신규 고용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정부가 상생형 일자리 확산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업의 경쟁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자칫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생형 일자리는 기존 노동자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및 교육, 의료 지원 등으로 보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꼽을 수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작년 1월 말 광주에 경차 생산 공장을 짓고,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을 3500만 원(주 44시간 기준)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여 1만2000명(간접고용 포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시작으로 경남, 구미, 군산 등에서도 상생형 일자리 협약이 잇따라 체결됐다.

이처럼 여러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한몫했다. 더욱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 1순위로 꼽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생형 일자리가 늘 것으로 보인다. 바꿔 말하면 상생형 일자리 확산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심화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상생형 일자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 부작용 또한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 경기 부진 시 공장 폐쇄 등으로 인한 인력 감축 후폭풍이 거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지엠 사태에서 엿볼 수 있다. 한국지엠은 경영 악화로 2018년 5월 군산 공장을 폐쇄하면서 수많은 인력이 일터를 떠나야 했다.

성 교수는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상생형 일자리 사업 성과를 살펴본 뒤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노사가 자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 일자리를 발굴하고, 정부는 일부 지원과 중재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금 협상을 둘러싼 신규 근로자와 사용자 측 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상생형 일자리는 대개 임금관리위원회에서 설정해준 한도 내에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구조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초기에는 이런 구조에 잡음이 없겠지만 향후 임금협상권을 보장해 달라는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노사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생산직 야근수당 비과세, 연봉 3000만원으로 확대

中企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창작·예술 관련업 등 추가
소재·부품·장비 R&D 40% 세액 공제… 핀테크 법인세 감면
재벌 공익법인 자산 1% 의무 지출…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은 소재·부품·장비기술(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에 집중됐다. 소부장 R&D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만 연간 12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기존 세법 개정안과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되지 않은 주요 대책을 보면, 먼저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 인사 시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가 세액공제 된다. 대상 외국법인은 소부장 품목을 생산하면서 소부장 품목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이다. 또 소부장 관련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선 5년간 소득세의 최대 70%가 감면된다.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등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액의 5%가 세액공제 된다. 의무투자비율은 증자금액의 80% 이상이다.

R&D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첨단 소부장,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이 추가돼 총 11개 분야 223개 기술이 된다. 이들 기술의 R&D 비용은 30~40%(대·중견 20~40%) 세액공제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소위 100대 핵심 소부장 품목은 사실상 모두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고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재벌그룹의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고자 자산 5억 원 또는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인 일반 공익법인도 의무적으로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가액의 1%를 지출해야 한다. 그간 대기업 집단에서 세제 혜택이 큰 공익법인에 계열사의 지분을 현물 출자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높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번 조치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단순하게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이 추가된다. 현재 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데, 앞으로 정보통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 유지의무는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로 완화한다. 주류 제조키트는 주류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되며,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선 주류와 담배가 면세물품 구매한도에서 제외된다.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차원에선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소액공제 요건이 개선된다. 현재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이 동일한 기업에 재취업할 때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앞으론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취업요건도 동일 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인정요건이 '소멸시효(3년) 후'에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 완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특히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이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에서 연봉 3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3~5년간 70~90% 감면) 대상에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등 감면업종으로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올해 세수는 1800억 원 감소될 전망이다. 기발표 세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가 600억 원이고, 신규 대책에 따른 세수감소가 1200억 원이다. 신규 대책의 세수 감소는 대부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확대에 기인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밑줄은 미발표 사항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❶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연장,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
❷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 대폭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핀테크 업종 추가
❸ 가업상속공제 자산·업종유지의무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유지의무 완화,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

조세제도 합리화

❶ 국세환급 지연 시 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 압류금지 확대,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조세심판 관련 투명성·공정성 제고
❷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개선
❸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과세범위 조정,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감면율 상향,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 등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❶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 요건 완화 등
❷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 어로어업소득·영어조합법인 비과세 범위 확대
❸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요건 완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 소액채권 대손금 인정범위 확대 등
❹ 공익법인 의무지출비율 규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특례 합리화, 임대등록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거주요건 추가 등

다주택자, 10년 보유 주택 팔 때 양도세 중과 6개월 유보

부동산 세제 어떻게 바뀌나
공동주택 소수 지분자도 과세
대토 보상 양도세 감면율 15%

정부가 임대사업자와 고가 상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나선다.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세액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또 주택 수 산정 방식도 바꿔 주택을 공동소유한 소수 지분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상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현재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도 달라진다. 그동안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최다 지분자의 소유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30% 초과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보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보유주택 수는 월세·전세 과세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할 경우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며, 3주택 이상은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올해도 줄어든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을 추가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분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의 전입요건이 추가되고 중복보유가 허용되는 기간도 짧아진다.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세입자)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 기한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6월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대토(代土) 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현행 10%에서 15%로 인상된다. 올해부터 3기 신도시 등에 수십조 원대 보상비가 풀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우려해 땅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구의 다른 땅을 주는 대토 보상을 권장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문선영 기자 moon@

"성차별 호소에 '군대나 가라' 논점 벗어난 대결은 그만"

❸ 젠더 갈등- 전문가 제언

"젠더 갈등 때문에 남성들이 밤길을 두려워하나요, 원룸 주거지에서 불안한가요,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을 염려하나요, 회식 자리 성추행에 화가 나나요, 아님 사이버 성폭력에 부당함을 느끼나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성 기자로부터 '젠더 갈등'은 프레임일 뿐 실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을 때 한 말들이다.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의 남성 비하 발언을 마치 전체 여성 혹은 모든 페미니스트의 주요 발언인 양 '젠더 전쟁'이니 '젠더 갈등'으로 몰아가는 언론의 보도 방식에 문제 제기하고 싶어서였다. "그렇군요, 정말 그렇네요"를 연발하던 그는 그러나 나의 말을 기사로 쓰지는 않았다. 엄청난 인터넷 댓글이 버거워서였을 거라 짐작했고,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다.

'젠더 갈등'이라는 표현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페미니즘이 제도화된 1970년대 이전부터 반세기 넘게 한국 사회에서 호주제를 비롯, 사회와 제도의 불공정한 여러 문제를 공론화해 온 여성주의 운동가와 학자들의 발언은 무게 있게 다루지 않던 언론이 몇 년 전 구성된 그 소수 특정 그룹의 발언은 확성기를 단 듯 과장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도한다. 그래서 '젠더 갈등'이라는 웃지 못할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한국과 일본 간 이견이 최근에야 '갈등'으로 성립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양측의 대등한 힘과 서로에게 미치는 비슷한 수준의 존재감이 있다. 한국 입장에서 보자면 1960~1970년대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마찬가지로 여성과 남성 사이에 '갈등'이 성립하려면 주요 의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이나 서로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엇비슷한 수준은 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상황이 어디 그런가. 여성들은 지위고하 ·연령에 상관없이 일상적 수준에서 불안함과 부당함을 느낀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패키지처럼 따라오는 문제 제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남성들의 '병역'이다. 이 문제 제기는 '집, 학교에서 부당하게 맞고 군대 가서 또 맞고 군복무 때문에 학업과 취업이 지연됐고 그런데도 '여성 우대' 정책으로 승진에서 밀렸다. 그래서 남자도 억울하다'로 전개된다.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은 일상의 거의 모든 공간이 적지 않은 가해 남성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억울하면 군대 갔다 와라"는 주문은 동문서답치고도 매우 생뚱맞다.

'부당한 군 경험'은 인권 관점으로 고쳐야 할 제도의 문제이자 한국 남성 문화가 풀어야 할 숙제이지 일상적 불안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는 여성들도 경험해야 할 일은 아니다. 비민주적 군 경험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몫이지 여성 일반이 감당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게다가 (성평등을 말하려거든) "여자도 군대에 가라"는 주장은 여군들이 군에서 당하는 성폭행과 성차별을 설명하지 못한다.

여성으로서 불안감 얘기하는데 병역문제로 갈등 확산 옳지 않아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 소수 커뮤니티 남녀혐오 발언에 '젠더 갈등' 프레임 만들면 안 돼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3주기였던 지난해 5월 17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추모 집회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 비민주적 군대에 대해 가장 많은 문제 제기를 한 학자군은 페미니스트이다. 검색창에 필자의 이름만 넣어도 군사주의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한 논문들이 여럿 검색된다. 이렇듯 최근 훨씬 높아진 군 인권 감수성에는 페미니스트들이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여성들의 성평등 문제 제기는 결국 민주주의에 기초한 일상 회복에 관한 것이고, 그렇게 회복되는 일상은 분명 군대 내 인권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또 누가 알겠는가. 한국 군대가 성별 불문, 생애주기 일정 기간 시민성, 리더십, 애국심 등을 배우러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조직이 될지.

예를 들어 여성 가해자의 성폭력 때문에 남성들도 밤길이 두렵고 공중 화장실이 불안하고 회식 자리가 꺼려진다면, 그래서 남성들의 일상도 불편부당하다면, 젠더 갈등은 프레임이 아니라 실재하는 거다. 특정 페미니즘 표방 그룹 말고 오랜 역사를 가진 페미니스트 활동가와 학자들의 이론, 상식을 가진 다수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여자도 군대에 가라"는 주장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일상과 군대 내 민주주의 확산에 힘써 온 페미니스트 그룹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처럼 군 문제는 군 문제대로 해결하고 '젠더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걷자. 처음부터 불가능한 개념이었으니.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 주요 학력
-1984. 2. 중앙대 부속여자고등학교 졸업
-1988. 2. 연세대 교육학과 졸업
-1995. 12. (미)위스콘신주립대 성인여성교육 석사
-1998. 5. (미)위스콘신주립대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박사
◆ 주요 경력
-2002~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2018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2018.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
-2012~2014.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소장

혐오로 변한 갈등

'젠더 갈등' 심화시킨 이슈들

강남역 살인사건	2016년 5월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되면서 젠더 갈등 시발점이 된 사건
미투	2018년 2~3월	서지현 검사, 김지은 씨 등 폭로로 미투 운동 촉발
곰탕집 성추행 논란	2018년 9월	성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사건
이수역 폭행 사건	2018년 11월	남성 3명 여성 2명 사이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쌍방 폭행이냐 일방 폭행이냐를 두고 의견 대립
대림동 여경 논란	2019년 5월	여성 경찰이 주취자를 제압하지 못했다며 '여경 무용론' 확산

'양성평등' 외침 뒤엔 '역차별' 구호 청년세대로 갈수록 극단적인 반응

20만명 동의 얻어 답변 받은 국민청원 40%가 '젠더 이슈'

갈등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 관행 깨는 사회적인 노력 필요

2017년 8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개설 이래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답변이 이뤄진 청원 10개 중 4개는 '젠더' 관련 이슈였다.

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답변을 받은 청원 98개 중 39개(39.8%)가 젠더 관련 내용이었다. 1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의 25.4%(882개 중 224개)도 젠더 관련으로 남녀 간 갈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자리했다.

우리 사회를 뒤덮은 수많은 갈등 중 젠더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증오'로까지 이어지며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의 건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은 대표적인 '여성 혐오' 범죄이다. '이수역 폭행사건', '곰탕집 성추행' 등으로 젠더 갈등은 심화됐다. 극단적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혐오의 대상으로 규정짓고, 증오하면서 과격해 지기도 했다.

특히 '양성평등'의 외침 뒤엔 '역차별'이라는 구호가 따라다녔다. 청년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더욱 격렬하게 젠더 문제에 반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2030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또렷해졌다. 올 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만19~39세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2030세대 젠더 인식을 분석한 '포용국가와 청년정책'에 따르면 여성은 '불평등', 남성은 '역차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조사 대상 여성 89.0%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심하다고 봤고, 남성은 45.8%만 동의했다. '남성에 대한 성차별'과 '남성 혐오'에 대해서는 남성의 70%가량이 심각하다고 해 입장차를 보였다.

최근 국가미래연구원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던 사회 주제를 갈등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젠더 갈등이 7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5년 상반기~2016년 상반기 조사 당시 남녀 갈등이 31.0%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 젠더 관련 전문가는 "갈등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남녀 간 '다름'을 인정하고, 성차별적 관행을 깨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sh@

車 만드는 구글·애플… 업종 간 영역파괴 '빅블러' 확산

❹ 무너지는 산업 경계

우버 등 '공유 플랫폼' 급성장
은행권-통신업계 협업 가속화
유통업계에선 '페이전쟁' 한창

AI·ICT 등 혁신기술 등장으로
온·오프라인 경계 모호해지고
'협력·경쟁' 역학관계 복잡해져

토요타, 폭스바겐, 다임러 등 쟁쟁한 자동차 회사들이 있다. 이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는 누구일까. 바로 차를 한 대도 만들어보지 않은 차량 연결 기술 플랫폼 '우버'다. 또한, 구글과 애플 등도 직접 자동차 제조에 뛰어들며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산업에 속한 회사를 분류해보자. 과연 우버와 구글, 애플은 자동차 산업에 속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산업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빅블러는 미래 학자 스탠 데이비스가 1999년 저서인 '블러: 연결 경제에서의 변화의 속도'에서 '블러'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서 유래됐다. '블러'는 혁신적 변화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의미로 쓰였다.

과거에는 업종 간 경계가 분명했다. 산업별 구분이 쉬워 '동종업계'라는 말이 통용됐다. 그러나 혁신 기술이 등장했다.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오면서 상품과 서비스가 하나로 묶이거나, 전통적 판매자와 구매자의 경계가 희미해졌다. 공유 플랫폼 등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라는 관계가 사라지고, 공급자와 사용자 관계가 새로 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유 플랫폼의 발달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 여행 갈 때 호텔을 예약하지 않아도 현지인처럼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집을 판매하진 않지만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해 오프라인으로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구글 자율주행 자동차 시제품. AP/뉴시스

특히 빅블러 시대에는 온라인·오프라인의 경계도 무너지고 있다.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미국 유기농 식품점 홀푸드를 인수하고 '아마존 고'라는 무인점포를 운영하면서 온·오프라인의 벽을 무너뜨렸다.

산업군별로 살펴보면, 유통과 금융, 통신 등의 산업에서 이러한 빅블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유통업계에선 '페이(Pay)' 전쟁이 가득하다. 물건을 파는 자사의 플랫폼에서 결제 시스템 역시 직접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신세계가 제공하는 'SSG페이(쓱페이)' 등이 대표적이다. 패스트푸드점, 영화관 등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과 결제를 진행하는 것 역시 빅블러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은행권에선 통신업계와 합종연횡이 한창이다. 하나금융은 SK텔레콤과 생활금융 플랫폼 '핀크'를 만들고 AI를 기반으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협업해 모바일 신용 대출 상품인 '우리 비상금 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계 역시 ICT 기업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카카오와 손잡고 디지털 전문 손해보험사 설립을 준비 중이다.

혁신 기술의 등장뿐만 아니라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역시 빅블러 현상을 촉진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화장품 사업을 시작'ㅁ하고,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콘텐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제조 대기업 관계자는 "쇼핑, 금융 등 생활 전반에서 온·오프라인이나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의 기회가 다양해졌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쟁자가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융합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 기술의 발전으로 빅블러 현상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 역시 주요 사업의 전문성을 키우는 동시에 다른 사업 기회를 모색해야 생존할 수 있는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eugene@

"대기업 위주로 산업 재편… 中企 생존 위협" 빅블러의 그늘

신산업-기존사업과의 충돌
정부가 나서 완충역할해야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으로 산업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산업의 재편과 성장을 가속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동시에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글로벌 대기업 일부가 산업 생태계의 포식자가 되면서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이 무더기로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위주로 산업이 재편될 수 있다.

빅블러 현상이 두드러지는 곳 가운데 하나가 금융권이다. 돈이 움직이는 곳은 항상 혁신 기술이 가장 먼저 진입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삼성페이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결제 서비스 시장에도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위의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삼성페이를 심어 모바일 결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네이버는 인터넷 쇼핑에 진출하면서 네이버 위주의 산업을 조성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장점을 결합해 기존 쇼핑 사이트의 제품과 가격을 한곳에 모으는 전략으로 소비자를 흡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은 개인이나 소규모로 운영되던 인터넷 쇼핑 사이트들이 사라졌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쇼핑 사이트 등장도 전통 인터넷 쇼핑 사이트들에는 위협적이었다.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산업 재편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카풀과 타다를 두고 택시업계가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선보이려고 하자 택시업계는 극렬하게 반대했다. 이어 최근 타다 이용객 수가 급증하자 택시업계의 화살은 카풀에서 타다로 돌아섰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현재 정치권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모빌리티 시장은 6년 사이 규모가 5배 가까이, 이용객 수도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IT 기술 발달과 함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택시 업계는 고사 직전에 놓였다. 모빌리티 서비스를 자주 애용하는 세대는 경제활동을 직접 하는 세대들인데, 이들 가운데에서도 젊은 층으로 갈수록 IT와 신기술에 친숙하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IT 모빌리티 업체에 밀려 전통 택시 산업이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카카오·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전형적 빅 블러 현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빅 블러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급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양측의 충격을 줄여줄 완충지대를 정부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청년창업의 꿈이
꿈에 끝나지 않도록"

신한은행이 「창업은행」이 되어드립니다

신한은행의 차별화된 일자리 지원 플랫폼-
신한두드림스페이스에서
청년 창업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신한의 따뜻한 금융이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신한 두드림 스페이스 | 창업교육

팀 프로젝트와 맞춤 코칭을 통해 창업인재를 육성하는 '디지털라이프스쿨'과
영상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두드림 크리에이터 교육'을 진행합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730명이 교육이수를 통해 자신의 꿈과 열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5G 시대, 실감 콘텐츠·클라우드 게임 각광"

산업硏 '5G 시대, 콘텐츠 산업의 변화·시사점'

AR·VR 콘텐츠 제작 활성화
1인 미디어·쇼트폼 영상 확산
"토종 플랫폼 개발·육성해야"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5 Generation) 서비스는 기존의 4G 서비스 대비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등 특성을 가져 산업 전반의 혁신과 생태계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5일 발표한 '5G 시대, 콘텐츠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5G 서비스 보급으로 인해 콘텐츠산업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감 콘텐츠 및 인터랙티브 콘텐츠, 클라우드 게임 등이 각광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홀로그램 콘텐츠의 제작 활성화가 이뤄지고 1인 미디어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인 미디어 시장 확대와 더불어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화하면서 짧은 분량의 쇼트폼(Short-form) 콘텐츠가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저장매체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지 서버에 접속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은 2017년 4500만 달러에서 2023년 4억5000만 달러로 10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용량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홀로그램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 산업이 확대되고 5G가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처리 환경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스토리 전개방식과 결말이 달라지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공급과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에도 불구, 플랫폼과 콘텐츠산업의 부재, 미국과의 기술격차 및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급 분류 환경 등으로 5G 관련 산업의 선도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박지혜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실감형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모색하고, 영세한 콘텐츠 기업들이 높은 제작비용, 기반시설 부족, 유통 플랫폼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5G 시대, 차별화된 새로운 콘텐츠 및 미디어 확산을 위해 시장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고 해외 동영상 플랫폼이 장악한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토종 플랫폼 개발 및 육성을 위한 기업들의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21대 총선 D-100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100일'을 하루 앞둔 5일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韓銀, 세계경제 좌우할 '5대 이슈'

- 4차 산업 주도권 경쟁
- 국제무역 질서 재편
- GVC 내 아세안·中 역할 변화
- 中 성장구조·정책기조 전환
- 기후 변화 국제적 대응 가속

주요국의 4차 산업 주도권 경쟁, 국제무역질서 재편, 향후 글로벌 밸류체인(GVC) 내 아세안과 중국의 역할 변화, 중국의 성장구조전환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가속화.

한국은행은 6일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를 이같이 꼽았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관련 산업 육성 움직임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각국 주도권 경쟁 과정에서 국가 간 무역마찰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고 봤다.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기반의 다자무역체제가 약화하고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 활성화하는 등 국제무역질서에도 변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분업구조가 약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최종재 생산거점이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이전되는 양상이다. 실제 2010~2018년 중 중국의 최종재 수출비중은 감소한 반면, 아세안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정책기조도 변화 중이다. 실제 중국 정부는 2010년대 들어 단기 성장부양보다 소비중심의 내수기반 확충과 레버리지 축소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질적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약화하는 대신 소비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제기구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인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최근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 일부 산업경기 위축 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박 연료가스 배출규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EU의 탄소 국경세 부과 등 환경규제 강화는 주요 산업의 생산과 교역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근영 한은 국제경제부장은 "글로벌경제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경기대응을 위해 정책당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뚜렷하고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따른 정책대응도 필요하나, 글로벌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응과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중 무역분쟁도 이런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가장 핵심적 이슈다. GVC 변화도 수출 비중이 큰 우리로서는 무역구조 규범 변화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 경제도 최근 기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그 흐름을 잘 포착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 산업구조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새보수당 출범·안철수 복귀… 재편되는 야권

한국당, 안철수·유승민계 포용 의지… 바미, 대안신당과 통합 모색

4·15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야권이 재편되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달 중 '보수 빅텐트'를 세워 안철수·유승민계를 모두 포섭한다는 의지다. 유승민계가 떠난 바른미래당 역시 다른 야당과의 통합을 꾀할 모양새다.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설 연휴 전 귀국하는 점도 관심을 끈다.

개혁보수를 표방하는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속 의원,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바른미래당에서 7명의 의원과 함께 탈당한 유승민 의원은 하태경 의원 등과 흰 티셔츠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참석했다.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이동섭 의원과 권은희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새보수당은 이날 창당대회에서 순환형 집단대표 체제를 발표한 가운데, 첫 책임대표는 하태경 의원이 맡는다.

하태경(왼쪽 세 번째)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당창당대회에서 공동대표들과 함께 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안철수 전 의원의 새보수당 합류 가능성과 관련해 "안 전 의원이 야당의 길을 간다면 기존 야당과 최소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국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통합을 성사시킨다는 의지다. 우선 통합 대상은 새보수당이지만, 유승민계는 한국당과의 물밑 논의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총선 준비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앙당 창당 이후에도 12일 충북을 비롯해 경북·제주·강원 시도당 창당을 계획 중이다.

애초 안 전 의원의 바른미래당 복귀가 점쳐졌으나, 손학규 대표가 '돌아오면 당의 전권을 주겠다'는 말을 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 분위기다.

안 전 의원이 '독자 생존'을 모색할 수 있지만, 4년 전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일으킨 '안철수 바람'이 다시 불지도 미지수다.

한편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수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가 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제안한 것도 정계개편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與,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법'·'유치원 3법' 상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재시동을 걸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6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눈앞에 다가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순차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지 관심을 끈다.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7~8일 인사청문회 개최로 '총리 인준 정국'이 시작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과의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쪼개기 임시국회' 전법으로 이를 관철할 계획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해 "내일(6일) 문희상 국회의장께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신재생에너지 매출 9조·종사자 3.5만명

태양광 모듈 국산화 80% 육박
에너지공단, 2018년 산업통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 등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일자리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국내 매출은 9조3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2%가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3만5215명으로 1.8%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증가폭이 컸다. 신재생에너지 서비스업은 매출과 고용이 각각 34.0%, 6.0% 증가했다.

신재생 전 산업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 기준으로는 2017년 44.0%에서 2018년 48.6%로 늘었고, 고용 기준으로 보면 같은 기간 58.2%에서 60.6%로 확대됐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은 매출이 늘어나는 데 비해 인력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은 11.1% 늘어났으나 종사자 수는 3.9% 감소했다. 가장 비중이 큰 태양광 역시 매출은 7.3% 늘었지만 종사자 수는 2.2% 줄었다.

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한 것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업 중 일부가 업종을 전환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은 2017년 33.1명에서 2018년 36.1명으로 늘었다.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설비 설치 규모는 2017년 174.3GW에서 2018년 174.8GW로 소폭 늘었지만, 설치 단가가 떨어지면서 시장 규모(금액 기준)가 11.3%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의 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포인트 상승한 78.8%로 집계됐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미국-이란 '전쟁 공포'… 글로벌 금융시장 요동

유가·금값, 작년 9월 이후 최고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글로벌 증시 '최대 변수'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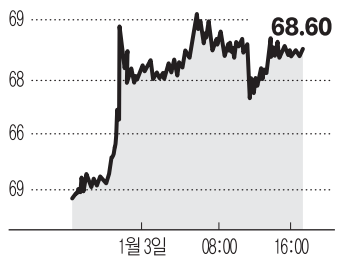
이란 사태가 새해 벽두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금융전문 매체 마켓워치는 4일(현지시간) 최근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지난해 가파른 증시 상승세가 펼쳐진 만큼 중동발 지정학적 혼란에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미군이 전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드론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원유 공급 불안 우려에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려들면서 금(金)과 미국 국채 가격이 뛰었다. 반면 뉴욕과 유럽 등 글로벌 증시에는 매도세가 유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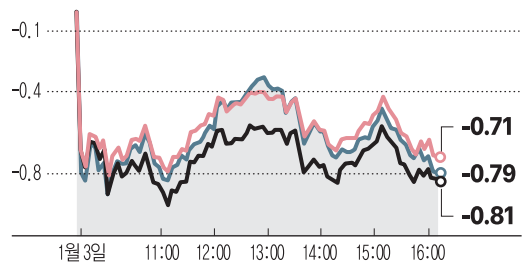
국제원유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은 전날 3.6% 급등한 배럴당 68.60달러로, 사우디아라비아 핵심 석유시설이 공격을 받았던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3.1% 뛴 배럴당 63.50달러로 마감했다. WTI는 장 초반 64.09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브렌트유 3일(현지시간) 변동 추이
(단위 : 배럴당 달러)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증시 3대 지수 3일(현지시간) 등락률 추이
(단위 : %, 전일 대비) S&P500 나스닥 다우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6% 오른 온스당 1552.40달러로, 작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8bp(bp=0.01%포인트) 하락한 1.79%로 1개월 만의 최저치를 나타냈다. 국채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국 달러화 대비 일본 엔화 가치가 0.5% 오르는 등 안전자산이 강세를 보였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전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시장의 불안을 반영, 일제히 하락했다. S&P500지수는 0.71%로 1개월 만의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으며 다우지수가 0.8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가 0.79% 각각 떨어졌다. 범유럽 증시 벤치마크인 스톡스유럽600지수도 0.33% 빠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급격한 긴장 고조에도 시장 반응은 상대적으로 잠잠했다며 이는 지난해 9월 사우디 핵심 석유시설이 공격을 받을 당시 시장이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졌으나 이후 빠르게 진정됐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디펜던트어드바이저얼라이언스의 크리스 자카렐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전날 벌어진 일들은 올해 시장이 직면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모닝콜과 같다"며 "긴장이 더욱 고조돼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시장 후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CIBC프라이빗웰스매니지먼트의 데이비드 도나베디언 CIO도 "미국과 이란 분쟁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것 같지 않다"며 "작년 9월과 다르게 이번 사태가 원유와 기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게 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ING 애널리스트들은 전날 보고서에서 "그동안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크게 투자했기 때문에 중동 긴장이 심각하게 고조되면 글로벌 증시가 7~10% 하락하는 조정 장세로 접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이란, 미군 공격 위협 vs 美 "52곳 정조준"
중동 화약고 '일촉즉발'

美 공격에 이란 군부 실세 사망
이라크 등 他지역으로 불똥 우려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 군부 실세가 사망한 이후, 중동 상황이 악화일로다. 이라크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PMF)가 미군 주둔 기지 공격을 예고했고, 미국도 공격 목표를 정해놨다며 위협하는 등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PMF 산하 카타이브-헤즈볼라는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을 예고했다. 이라크에는 미군 5000여 명이 10여 개 기지에 분산해 주둔하고 있다.

카타이브-헤즈볼라는 이날 "이라크 군경 형제들은 5일 오후 5시부터 미군 기지에서 적어도 10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면서 미군에 대한 공격 전, 이라크 병력이 안전하게 이동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인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과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PMF 부사령관 겸 카타이브-헤즈볼라 창설자를 살해한 데 대한 보복 경고다.

미군 기지 공격 위협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인이나 미국의 자산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이란의 52곳을 공격 목표 지점으로 정해놨다"며 "매우 신속하고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물 52곳은 이란이 오랫동안 인질로 잡은 52명의 미국인 수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일촉즉발의 중동 상황은 지난달 27일 이라크 키르쿠크의 K1 군기지에 대한 로켓포 공격으로 미국인 1명이 숨지면서 촉발됐다. 미국은 이란의 사주를 받은 카타이브-헤즈볼라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고 이틀 뒤인 29일 이 조직의 군사시설 5곳을 공격, 간부급을 포함한 조직원 25명이 숨졌다. 31일과 이달 1일에는 PMF가 주도한 반미 시위대가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에 난입해 점거를 시도했다.

미군은 3일 바그다드 공항에서 솔레이마니 사령관과 알무한디스 부사령관을 폭격해 살해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사담 후세인 정권을 타도하고 나서 현지 재건을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왔다. 그러나 이라크는 사회적, 종교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이어서 안정 실마리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 이라크 내 소수파인 이슬람 수니파에 속하는 후세인이 제거된 이후 그동안 시아파가 정권을 장악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시아파의 수장인 이란이 극도로 대립하면서 이라크 내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 수니파는 이란 영향력 확대, 시아파의 권력 증대에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일부에서는 솔레이마니 살해를 환영하는 것도 확실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이라크의 분단과 혼란이 심화하는 한편 다른 지역으로도 불똥이 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20억8000만원 낙찰받은 참치 일본 요식업체 스시 잔마이의 기무라 기요시(오른쪽) 대표가 5일(현지시간) 도쿄 도요스 시장에서 열린 새해 첫 참치 경매에서 1억9300만 엔(약 20억8000만 원)을 주고 낙찰받은 276kg짜리 참치 옆에서 양팔을 벌리고 서 있다. 올해 낙찰가는 작년 경매에서 기록한 3억3360만 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작년 최고가 참치를 낙찰받은 인물도 자칭 '일본 참치왕'인 기무라 대표였다. 도쿄/EPA연합뉴스

신차 판매 2년째 뒷걸음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세계 신차 판매가 2년 연속 감소한 데다가 돌파구도 뚜렷하지 않아 자동차업계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19년 세계적으로 신차 판매가 2년 연속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2009년 이후 첫 2년 연속 판매 감소다.

국제자동차공업연합회(OICA)은 2019년 1~11월 중국·미국·유럽·일본·인도·브라질·한국·러시아·동남아시아 6개국 등 주요 시장에서의 신차 판매량이 총 726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의 0.6% 감소에 이은 2년 연속 감소다. 이들 시장은 세계에서 비중이 80%를 넘는다.

이번 부진이 금융위기 때보다 더 뼈아픈 이유는 구원투수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데 있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일본·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수요가 급감하면서 신차 판매가 감소했지만 중국 등 신흥국이 버텨주면서 그나마 낙폭을 줄였다.

그러나 당시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신흥강자들이 이번에는 흔들리면서 신차 판매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4위 인도가 경기둔화로 판매가 급감한 탓에 세계 수요를 끌어올릴 시장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의 지난해 1~11월 신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여파로 경기가 둔화하면서 고용 불안 및 실질 임금 하락이 이어진 탓이다.

신흥시장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세계 2위 시장인 미국의 신차 판매는 155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작년 7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로 자동차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판매세가 회복됐지만 상반기 침체 여파가 컸다.

일본은 전년보다 0.7% 감소했으며 유럽은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프랑크 비터 폭스바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가장 좋은 시절은 지나갔다"고 한탄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글로벌 주요 시장 신차 판매

	2018년1~11월	2019년 1~11월	증가율
중국	2542만 대	2311만 대	-9%
유럽	1695만 대	1695.9만 대	0.1%
미국	1569.5만 대	1551.5만 대	-1.1%
일본	488.4만 대	485만 대	-0.7%
인도	408.5만 대	351.4만 대	-14%
동남아	324.8만 대	315만 대	-3%
브라질	233.1만 대	252.5만 대	8.3%
러시아	162.5만 대	158만 대	-2.8%
한국	141.3만 대	139.4만 대	-1.4%
합계	7565.1만 대	7259.7만 대	-4.0%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MS 약진… 아마존, 클라우드 패권 '흔들'

경쟁사, 기업 고객과 오랜 관계 이점… 시장 급성장에 선점효과 약화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IT 기업들의 먹거리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동안 시장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렸던 아마존닷컴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경쟁사들의 약진에 클라우드 시장 지배력이 눈에 띄게 약화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리서치 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지난 10년간 약 246% 성장했다. 또 차세대 이동통신인 5G와 사물인터넷(IoT)의 발전으로 향후 클라우드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만큼 IT 업체들이 아마존의 독주를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시장에서 확실한 리더이지만 다른 업체와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가트너는 아마존의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임대시장 점유율이 2018년에 47.8%로, 전년의 49.4%, 2016년의 53.7%에서 계속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2위 MS 점유율은 2016년 8.7%, 2017년 12.7%, 2018년 15.5%로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를 조기에 수용했다. 10여 년 전에 핵심 사업인 전자상거래를 위해 컴퓨터와 서버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일부를 다른 회사에도 임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클라우드 시장에 먼저 뛰어든 것이다.

시장 선점 효과는 컸다.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부인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지난해 약 350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런 커다란 성공에 아마존은 다른 업체의 타깃이 됐다. 특히 경쟁사 대부분은 아마존보다 기업고객과 오랜 관계를 구축해왔으며 아마존으로부터 점유율을 빼앗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WSJ는 강조했다.

MS는 지난해 아마존을 제치고 100억 달러(약 12조 원) 규모의 미국 국방부 클라우드 계약을 따냈다. 아마존은 이에 반발해 법적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한은, 신성장·일자리 대출 6200억 급증 '역대 최대'

설비투자·'소부장' 지원 제도 개편
잔액 5.7兆… 6개월째 기록 경신
금융중개지원대출 15.5兆 돌파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중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 실적이 한 달간 6200억 원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다. 잔액도 5조7000억 원에 육박하며 6개월째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금중대 전체 잔액 역시 15조5000억 원을 넘어서며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같은 급증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5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금중대 실적 규모는 전월 말보다 4616억 원 증가한 15조568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6월 15조9795억 원 이후 최고치다. 이에 따라 25조 원 한도 대비 실적 비율도 62.3%까지 늘었다. 역시 2018년 6월 63.9%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금중대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 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0.5%에서 0.75%를 적용하고 있다. 통상 시중은행에서 먼저 대출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은에서 자금이 집행된다. 이에 따라 12월 금중대 실적은 2개월 전인 10월 시중은행에서 집행된 대출 실적이다.

프로그램별로 보면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은 6232억 원 증가한 5조6809억 원을 기록해 6개월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월별 증가폭 역시 이 프로그램 제도가 시작된 2018년 8월 이후 가장 컸다. 직전 최대치는 작년 9월 기록한 5154억 원 증가였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018년 9월 20일 일자리 창출기업 범위를 기존 청년고용에서 전체고용으로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작년 8월 30일 일본 경제보복 등에 대한 대응 조치로 소재·부품·장비기업(소부장)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3조 원, 운용자금 1조 원을 각각 지원하고, 기존 창업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당시 금통위는 지방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했다. 금융당국의 햇살론 시행에 따라 전환대출이 중단되면서 5000억 원으로 배정했던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대출은 작년 11월 13일부터 중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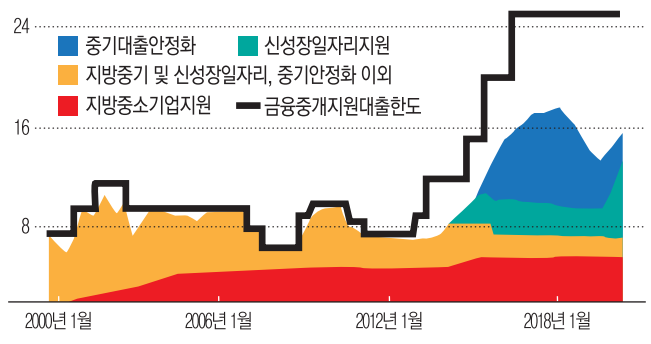
순증액에 대비해 대출을 늘려주기로 한 무역금융지원대출도 전월보다 350억 원 증가한 1조535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안정화대출은 1962억 원 감소한 2조4312억 원에 그쳤다. 이는 2015년 6월 2조4002억 원 이후 최저치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프로그램을 통합해 신설한 것으로 무역금융 한도 3조 원을 제외한 설비투자분 8조 원을 사실상 종료했었다. 영세자영업자지원대출도 4억 원 감소한 209억 원을 보였다.

지방중소기업지원은 전월과 같은 5조9004억 원을 기록했다. 양양 등 강원도지역 산불 피해에 따른 추가 대출 집행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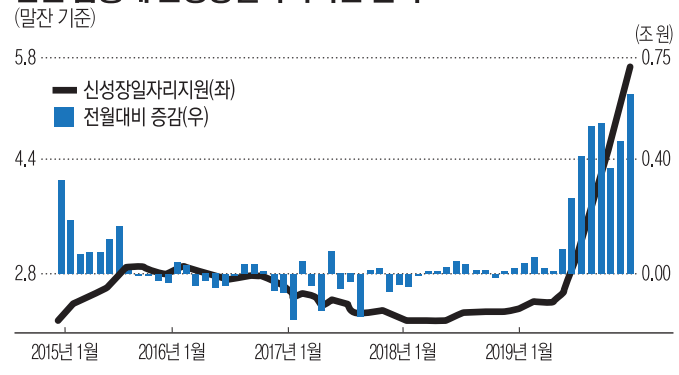
한은 관계자는 "신성장일자리 관련 대출이 급증했다. 추가 제도개편으로 12월부터는 설비투자에 소부장까지 실적이 집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월 실적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금융중개지원대출한도 및 실적
(단위: 조 원, 말잔 기준)



한은 금중대 신성장일자리지원 실적
(말잔 기준)



웰컴 투 디지털

복잡하고
불편하고
까다롭던
지금까지의 금융은 잊으세요

웰컴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로부터
더 쉽고 편한 앞선 금융생활이 시작됩니다

어서오세요. 웰컴디지털뱅크입니다

웰뱅 웰컴디지털뱅크
웰 컴 저 축 은 행

웰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508호 (2019.04.30)

비대면 채널 확대로 감원 '칼바람'

짐 싸는 '은행맨'

수익성 둔화 대비 인력 재편
하나·농협, 725명 희망퇴직
우리, 300명 신청 받아 심사

은행권의 '몸집 줄이기'가 계속되면서 연말·연초 특별퇴직(희망퇴직)으로 수백 명의 직원이 이미 떠났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은행권은 인력구조 재편에 집중하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주요 은행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은행별로 희망퇴직 절차를 밟았다. KEB하나·NH농협은행에선 작년 12월 말 기준 각각 369명, 356명이 희망퇴직했다.

KEB하나은행은 1964년과 1965년에 출생한 일반 직원 277명이 희망퇴직했다. 이들에겐 각각 22개월치, 31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이 지급됐다.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 92명도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를 이용해 회사를 나갔다. 이들도 각각 24~27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등을 받았다.

농협은행은 1963년생이거나 10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직원이 특별퇴직 대상이었다. 농협은 각각 평균임금의 28개월치, 20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지난달 1964·1965년생 직원을 상대로 '전직 지원'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우리은행에선 300명이 신청했다. 심사를 거쳐 확정된 이들은 이달 31일에 퇴직한다. 이들은 각각 평균임금의 30개월, 3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국민은행은 1964~1967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3일까지 받았다. 이들은 23~35개월치 특별퇴직금과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한은행은 근속 15년 이상에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1년 이후 출생자, 차·과장급 이하 일반직 중 1964년생이 특별퇴직 대상이다. 이들은 출생 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특별퇴직은 몇 년 전부터 정례화된 추세며, 최근 몇 년간 호황기를 누린 은행은 오히려 수천억 원을 들여 선제적으로 단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은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이 확산하면서 영업 점포를 계속 줄이고 있고,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둔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인력구조를 재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연 기자 contest@

K리그 '대전하나시티즌' 창단
"亞 넘어 글로벌 명문구단 도약"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4일 대전에서 '대전하나시티즌' 창단식을 갖고 "대전하나시티즌을 국내 무대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구단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사진〉

이날 대전 충무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창단식에는 김정태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 CEO가 참석했다. 이 외에 허태정 대전시장,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허정무 재단법인 하나금융축구단 이사장을 비롯, 대한축구협회 및 프로축구연맹 관계자와 구단 서포터스, 대전 시민 등 약 2500명이 참석했다.

선수단 기자간담회에 이어 가진 공식 행사에서는 하나시티즌 창단 선포식을 통해 새로운 구단 엠블럼과 유니폼을 공개하고, 황선홍 신임 감독 및 선수단 소개식과 구단기 전달식을 가졌다.

김정태 회장은 창단사를 통해 "새롭게 창단하는 대전하나시티즌을 통해 대전광역시가 '축구특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VW베라왕 Special Vera Day
CJ오쇼핑 1/7(화) 오후 12시 35분

www.CJmall.com | 080-000-8000

VERA WANG

카리스마서 수평적 소통으로… 젊은 오너 '리더십 리부트'

〈Reboot·재시동한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압축 고도성장 기간 우리나라 기업 오너들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앞세워 조직을 이끌었다. 산업 시대의 목표는 규격화였고, 이를 위해선 조직의 명령에 따라 구성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했다. 조직의 리더는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을 독려했고, 성과를 만들어 냈다.

최근 들어 젊은 오너 3·4세가 기업 수장에 오르면서 조직 리더십도 변화하고 있다. 이른바 '리더십 리부트(Reboot)'이다. 컴퓨터를 재시동한다는 뜻의 리부트는 말 그대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4차 산업 시대와 밀레니얼·Z세대의 등장 등 새로운 사회 변화 속에서 조직 오너들도 리더십에 재시동을 걸었다.

정해진 형식을 추구하고, 총수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조직원을 이끌어가는 게 기존의 리더십이었다면, 리부트한 리더십은 기존의 틀을 싹 벗어던진다. 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자(CEO)들은 수평적 관계, 자율성, 솔직함 등을 무기로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직원들과 소통한다.

이 같은 리더십의 변화는 그동안 서서히 이어져 왔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틀을 갖춰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재계 신년회와 신년사에 리더십 리부트의 힌트가 있다.

신년회 형식을 파괴했고, 총수 존재감도 낮췄다. 과거 '무조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인정하며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가 주류를 이뤘다.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해 경기 성남시 한 음식점에서 분당지역 구성원들과 번개모임 형식의 행복토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그룹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2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열린 2020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구광모(앞줄 왼쪽 세 번째) LG그룹 회장이 지난해 열린 'LG 테크 콘퍼런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LG그룹

SK그룹

총수 존재감 낮춘 '신년사 없는' 신년회

신입사원들과 대담 방식 "함께 노력하자"

SK그룹은 '신년사 없는' 신년회를 개최했다. 대신 여러 이해관계자 인터뷰, 특별 초청한 이해관계자 대표들의 현장 발언, 신입사원을 포함한 구성원의 대담 등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SK 관계자는 "이처럼 파격적인 방식의 신년회를 도입한 것은 SK가 지향하는 행복과 딥 체인지를 고객, 사회와 함께 만들고 이루겠다는 최태원 회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대 혁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조직 문화 혁신'을 내세운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역시 연초부터 파격적 모습을 보였다. 그룹 총수가 무대 위 단상에 올라서 '올해 판매(매출) 목표'를 강조했던 이전과 달리, 행사를 비전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이정표를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신년회에서는 무대 위 단상이 사라졌다. 정 부회장 역시 무대 위에서 대기하는 게 아니라 객석 중간에 앉아 있다가 무대 위로 올라섰다.

현대차그룹

무대 단상 없애고 정 부회장 객석에 앉아

변화와 혁신 목표로 직급·호칭 체계 축소

현대차그룹은 지난해부터 생각하는 방식과 일하는 방식에서 변화와 혁신을 가속하는 것을 목표로 직급과 호칭 체계를 축소 또는 통합했다. 초급 간부 연수회에는 정 수석부회장이 직접 등장하는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며 다가서기도 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역시 리더십 리부트의 대표 주자다. "회장이 아닌 대표로 불러 달라"며 파격을 유도했고, 주요 회의 때 넥타이를 먼저 풀고 성큼 임직원 앞으로 다가서고 있다. 올해 신년사는 임직원을 불러 모으지 않고 동영상으로 만들어 전 세계 LG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했다.

LG그룹

구광모 "회장 아닌 대표로 불러달라"

신년사 동영상으로 임직원 자유 시청

재계 관계자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리더십의 형태 역시 바뀌고 있다"며 "리더 스스로 취약함을 인정하고, 조직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데서 혁신과 지속 성장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현대차, 美서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작업

별도 법인 '모션랩' 설립… "카셰어링 관련사업 모두 검증"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 현대차그룹이 미국 LA 중심부에서 거시전략의 첫 단계인 '카셰어링' 실증작업에 착수했다.

보완점을 찾고 데이터를 수집해 카셰어링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실증 대상도 '모빌리티' 전체 분야로 확대한다.

4일(현지시간) 정헌택 현대차그룹 모빌리티사업실장(상무)은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현대차그룹의 모빌리티 실증법인 '모션랩(Moceanlab)' 기자간담회에서 "시장환경 등 여건이 성숙한 미국 LA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 법인인 '모션랩'을 설립했다"며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관련사업 모두를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셰어링은' 운전자 없이 내가 직접 차를 빌려 운전한다. 렌터카와 달리 시간은 물론 분 단위까지 사용요금을 세분화할 수 있어 인기다.

현대차그룹 모빌리티 실증법인 '모션랩' 관계자가 미국 LA 유니온역 앞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카셰어링을 예약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무엇보다 지정된 장소에서 대여하고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특징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카셰어링 차를 빌려 쓰고, 원하는 곳에 반납하면 된다. 현대차그룹이 실증작업을 추진 중인 사업이 바로 이 카셰어링이다.

카셰어링은 이미 자동차 산업에서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으로 떠올랐다. 세계적 리서치 및 컨설팅 전문기업인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Frost&Sullivan)'은 2025년까지 전 세계 카셰어링 이용 회원 수가 3600만 명으로 확대되고, 카셰어링에 제공되는 차량 수는 42만7000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다양한 혁신 기술과 접목한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예컨대 도심형 항공기를 이용해 차 막힘 없이 이동하고, 목적지에 다다르면 소형 전동스쿠터를 이용해 마지막 1마일을 달린다는 모빌리티 솔루션의 핵심이다. 모션랩은 단계별로 이런 사업 전반에 실증을 담당하기 위해 세운 법인이다.

모션랩은 △카셰어링 사업 △국내에서 시범 적용에 착수한 마이크로모빌리티(라스트마일 모빌리티)와 연계해 최종 목적지까지 이용자들의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다중 모빌리티 서비스(Multi-modal) △실시간 수요를 반영해 운행 경로상 다수의 목적지를 거칠 수 있는 셔틀 공유(커뮤니티형 이동버스)에 대한 실제 검증에 나선다. 로스앤젤레스=김준형 기자 junior@

'갤 S20·뉴 폴더블폰' 내달 11일 美서 공개

삼성전자가 다음 달 미국에서 갤럭시 S20과 폴더블폰 신제품을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내달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0'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에 보낸 언팩 초청장 영상은 어떤 제품을 등장할지 암시해준다.

이날 공개된 초청장 영상에는 갤럭시(Galaxy) 철자에서 알파벳 a대신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회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직사각형 모양은 갤럭시 S시리즈 신제품을 암시한다. 정사각형은 폴더블폰 신제품이 반으로 접힌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갤럭시 S시리즈는 갤럭시 S11이 아닌 갤럭시 S20으로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갤럭시 S시리즈는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서 순서대로 뒤에 번호를 붙였다. 다만 올해는 2020년을 맞아 시리즈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네이밍을 바꿀 가능성이 제기됐다.

제품은 △갤럭시 S20 △갤럭시 S20플러스(+) △갤럭시 S20 울트라 등 세 가지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카메라는 1억800만 화소를 지원하고, 광학 5배 줌이 가능한 후면 카메라 모듈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폴더블폰 신제품은 작년 출시된 갤럭시 폴드와 달리 위아래로 접을 수 있는 '클램셸(조개껍질)' 디자인의 제품이다.

신제품에는 플라스틱 필름이 들어간 갤럭시 폴드와 달리 초박막유리(UTG)가 쓰일 것으로 보인다. UTG는 투명 폴리이미드필름(CPI)보다 스크래치에 강하다는 강점이 있다.

이외에도 상단 중앙 카메라를 남기고 전체를 화면으로 채운 홀 디스플레이와 후면 듀얼 카메라를 적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코오롱인더 "미래 금맥 캐자" 신소재 개발 계열사 전폭 지원

'아토메탈테크' 투자 이어 신규 공장부지 확보

금속 관련 신소재 개발 기대

고부가 사업 투자 계속 확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래 금맥'인 고부가가치 신소재 투자에 나선다. 신소재를 통해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소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5일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따르면 신소재 계열사인 아토메탈테크코리아는 지난해 말 신규 공장 이전 부지를 확보했다. '비정질 합금 분말'을 국내에서 최초로 생산하는 회사인 아토메탈테크코리아가 공장 부지 마련에 나선 것은 생산 확장 차원으로 풀이된다.

신규 공장 부지 확보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아토메탈테크코리아에 대한 지분 투자와도 시기가 맞물려 있다. 앞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한 달 전 132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지난해 11월 투자를 시작한 데 이어 지분율 83.54%(주식 50만7692주)를 확보하며 이 회사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아토메탈테크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1억5200만 원에 불과하며 영업적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소재,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한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신소재 분야에 대한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로,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을 보유 중인 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토메탈테크코리아는 향후 자동차 부품, 금속사출성형기술(MIM), 3D 프린팅소재 등으로 비정질 합금 분말의 판매를 목표로 설정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아토메탈테크코리아와 금속 관련 신소재를 개발해 향후 제품에 적용, 더 나은 성능의 자동차 부품, CPI(투명폴리이미드필름) 등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단독 법인에 대한 지분 투자이기 때문에 아토메탈테크코리아의 신규 공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게다가 금속 관련 고부가가치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 개발상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밝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번 신소재 투자 외에도 향후 고부가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해 12월 SKC코오롱PI의 지분을 전량 글랜우드 프라이빗 에쿼티(글랜우드PE)가 세운 투자목적회사인 코리아PI홀딩스에 매각했다. 3040억 원에 달하는 매각 자금으로 신성장 투자와 재무구조 건전화에 나설 예정이다. 신소재 투자뿐만 아니라 아라미드, CPI 등 고부가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8K·5G·AI’ 글로벌 기업 미래 신기술 경연장

‘CES 2020’ 7일 개막

美 라스베이거스에서 나흘간
삼성·LG 등 4500여 社 참여
中TLC·日샤프 TV경쟁 치열
카카오프렌즈 IoT 기기 선봬

세계 최대 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0’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7일(현지시간) 개막한다. 4일 ‘CES 2020’ 개막에 앞서 부스를 설치하는 모습(왼쪽)과 전시장 앞을 걷는 사람. AP/연합뉴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7일(현지시간) 개막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 4500여 개사가 라스베이거스에 26만9000㎡(2723평) 규모로 마련된 전시장에서 나흘간 첨단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장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앤드 월드트레이드센터(LVCC)와 샌즈 엑스포 등지를 중심으로 설치된다.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3000여㎡(908평) 공간을 마련해 전시를 펼칠 예정이다. 작년 ‘올레드 폭포’를 구현해 이목을 끈 LG전자도 올해 주목도 높은 전시공간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SK·두산 등 주요 대기업도 각 사의 미래 주력 산업 기술을 뽐낼 예정이다. 특히 두산의 CES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프렌즈도 캐릭터 브랜드 업체 중 처음으로 CES에 참가해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선보인다.

IT 전문매체 씨넷은 올해 CES의 6가지 트렌드로 △음식 배달을 비롯한 각종 IT 서비스 △IoT가 주변에 공기처럼 존재한다는 뜻의 엠비언트 컴퓨팅 △헬스 및 웰니스 △개인정보 및 보안 △스트리밍 및 코드커팅 △5세대 이동통신(5G) 시나리오를 들었다. 스트리밍과 코드커팅(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발달로 유선 케이블 이용이 줄어드는 트렌드)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등 TV 업체가 주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TCL, 하이센스, 창홍, 일본 소니, 샤프 등이 참가해 마이크로 LED(발광다이오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8K, 롤러블 등 기술을 겨룬다. TCL은 최근 삼성에 맞설 미니 LED TV를 내놓았으며, 일본 샤프는 롤러블 TV를 공개한 바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삼성전자, AI 퀀텀 프로세서 ‘QLED 8K’ 공개

고화질 변환 업스케일링 강화
자동 밝기 어댑티브 픽처 기능

삼성전자가 ‘CES 2020’에서 공개하는 2020년형 QLED 8K 신제품 ‘Q950TS’.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7~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0’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화질과 사운드를 업그레이드한 2020년형 ‘QLED 8K’ 신제품을 공개한다.

2020년형 QLED 8K는 한층 진화한 AI 기술로 화질에서 사운드, 스마트 기능까지 제품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차원이 다른 8K 경험을 제공한다. 또 화면 베젤을 없앤 ‘인피니티(Infinity)’ 디자인을 적용해 TV 스크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삼성전자는 2020년형 QLED 8K에 머신러닝과 딥러닝 방식을 결합한 ‘AI 퀀텀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딥러닝 방식 적용으로 원본 영상의 화질에 관계없이 8K 수준의 고화질로 변환해 주는 업스케일링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이전 대비 복잡한 윤곽과 질감을 더 섬세하게 표현해 화질 완성도를 높여 준다.

새로운 AI 퀀텀 프로세서는 신경망 네트워크 모델을 기반으로 실행되며 학습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스스로 최적의 알고리즘을 생성한다. 어떤 영상이 입력돼도 최적의 업스케일링이 가능하다.

또 ‘어댑티브 픽처(Adaptive Picture)’ 기능이 새롭게 적용돼 어떤 시청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밝기와 명암비를 제공한다. TV가 주위 환경을 인식해 자동으로 화면 밝기를 조정해 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햇빛이 강한 장소에서도 커튼을 치거나 조명을 끌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는 영상 스트리밍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을 줄여 주는 ‘AI 스케일넷(ScaleNet)’ 기술도 탑재했다. 이 기술은 아마존과 협업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앱의 영상에 적용될 계획이다.

또 2020년형 QLED 8K TV에서는 유튜브의 8K AV1 코덱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게 된다.

풍부한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이 대폭 강화된 점도 특징이다. ‘OTS+(Object Tracking Sound Plus)’는 영상 속 움직이는 사물을 인식해 사운드가 TV에 탑재된 스피커들을 따라 움직이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통해 TV만으로도 5.1채널 서라운드 사운드 구현이 가능해져 자동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 등 화면에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몰입할 수 있게 해 준다.

라스베이거스=송영록 기자 syr@

LG전자가 ‘CES 2020’에서 ‘LG 씽큐(ThinQ)’ 광고판을 설치했다. 사진제공 LG전자

LG전자·엘레멘트 AI ‘인공지능 맞손’

공동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

LG전자가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위해 캐나다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인 엘레멘트 AI(Element AI)와 손잡는다.

LG전자와 엘레멘트 AI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 엘레멘트 AI CEO 장 프랑스와 가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

엘레멘트 AI는 CEO 장 프랑스와 가녜가 딥러닝 분야 세계적인 석학인 캐나다 몬트리올대학 교수 겸 밀라연구소 창업자 요슈아 벤지오 등과 함께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다. 금융, 유통, 전자전기 등 여러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양사는 인공지능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엘레멘트 AI CEO 장 프랑스와 가녜는 “LG전자와 함께 인공지능의 여정(AI journey)을 함께하게 돼 기쁘다”라며 “양사는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로서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술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평 LG전자 CTO(사장)는 “인공지능이 고객의 삶에 더 높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방향성이 필요하다”라며 “엘레멘트 AI와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의 체계적 발전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스베이거스=송영록 기자 syr@

지능정보사회 동향 파악 나서는 기업들

삼성·LG·현대차·SK그룹 등
계열사 임원들 미래 먹거리 탐색

이윤태 삼성전기 사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정철동 LG이노텍 사장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0’을 통해 국내 주요 기업이 대대적 IT 전쟁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계열사도 조용히 현장을 찾는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과 LG·현대차·SK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7~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0’에 조용히 참가해 최신 트렌드 파악에 나선다.

사회 전반이 빠르게 지능정보사회로 이동 중인 만큼, 시대 변화에 발맞춰 다음 세대 먹거리를 찾는다는 전략이다.

먼저 삼성전기와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대표와 사업부 임원들을 중심으로 CES 참가단을 꾸렸다. 대대적 글로벌 행사인 만큼 현장을 찾아온 주요 고객사와 별도 미팅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역시 대대적인 부스를 마련한 가운데 계열사인 LG이노텍은 행사장 밖에서 바쁘게 움직인다. 글로벌 고객사 관계자를 상대로 ‘바이어 미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CES 행사장이 아닌, 별도로 마련한 ‘프라이빗 전시공간’으로 바이어를 초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글과컴퓨터, 사물인터넷을 제품에 도입 중인 코웨이가 이번 CES에 참가하는 만큼,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잇따라 현장을 찾는다. 글로벌 경쟁 기업의 최신 기술과 신제품 동향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현대엠엔소프트 등 IT 계열사 실무진도 현장을 찾는다. 현대차가 이번 행사를 통해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전환’을 공언하는 만큼 계열사별로 참가단을 꾸리고 경쟁사 동향 파악에 나선다.

라스베이거스=김준형 기자 junior@

박원순표 ‘스마트 서울’ 세계에 알린다

CES 사상 첫 ‘서울관’ 개관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세계 최대 규모 가전 박람회이자 미래 혁신 기술 경연의 장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0’에서 ‘스마트시티&스마트라이프’를 주제로 서울관을 최초 운영한다.

서울시는 7~11일 세계 스타트업의 각축장인 유레카 파크(Tech West)에 290㎡(88평) 규모로 서울관을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공간은 △20개 참여 기업 부스(홍보존) △기업 홍보를 위한 상시 피칭무대와 비즈니스 미팅공간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비롯한 스마트도시 서울 홍보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관 전면에 가로 3.63m·세로 1.67m로 설치되는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유레카 파크를 찾은 참관객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시티 플랫폼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290개 시스템의 행정데이터와 서울시내 CCTV 영상정보를 시각화해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합리적 정책을 결정하도록 지원한다.

김진희 기자 jh6945@

중기부, R&D 지원사업에 1조4885억… 39% 증액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에 연간 2000억 이상 집중 지원
소·부·장 분야 특별회계 1186억 편성 지속적 육성 의지

정부가 올해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지원 사업자금으로 1조4885억 원을 투입한다. 작년보다 약 39% 증액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R&D)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올해 사업규모는 1조4885억 원이다. 작년 대비 4141억 원(38.5%) 많아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창출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자립을 위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올해 사업의 특징은 그간의 출연 및 보조 방식과는 다소 다르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투자방식의 R&D 지원과 개별 기업이 아닌 기술기반의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다양한 R&D 수요 충족을 위해 18개, 2807억 원의 지원사업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중기부는 신산업 투자 강화에 나선다.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에 연간 1000억 원 이상을 구분공모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 3대 인프라 산업인 D.N.A(Data-Network-AI)는 3개의 전용사업(267억 원)을 신설해 지원한다.

중기부, R&D 지원사업 주요 내역

	내용	규모
4차 산업혁명 신산업	기술혁신	307억 원
	창업성장	202억 원
	상용화	150억 원
	지역특화	400억 원
	AI	155억 원
	빅데이터	65억 원
	스마트센서	47억 원
소·부·장 분야 기술 자립	소·부·장 특별회계	1186억 원
중소기업 R&D 사업 신설	Lab to Market Fund	500억 원
	규제해결형	170억 원
	소셜벤처형	45억 원
	재도전형	95억 원

이른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지속적 육성의지도 드러냈다. 특별회계로 1186억 원을 편성했다.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R&D도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기술이전과 후속양산 자금까지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최근 선정한 소·부·장 분야 강소기업 100개사에는 R&D를 우대 지원하고 최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에도 3년간 R&D 가점 부여를 통해 기술 자립을 도와준다는 목표다.

다양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R&D 지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18개, 2807억 원의 사업을 신설했다. 민간 벤처캐피털(VC)의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선(先)민간 투자 후(後)정부 매칭' 투자방식으로 운영한다. 기업·투자자에게 정부 지분매입권한(콜옵션)의 일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상용화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포함됐다. 아이디어에서 스케일업까지 수행역량의 축적 정도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30% 이내의 평가과제는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도전적 R&D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R&D 관련 기술 및 시장(기업) 데이터를 수집·선별해 R&D 지원 전 주기에 따른 빅데이터 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스마트 R&D 지원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기업마당,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도 문의 가능하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영토 확장' 나선 네이버·카카오

네이버, 인플루언서 검색 확대
유튜브 등 외부 콘텐츠 한눈에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 다각화
'페이' 사용자 중심서비스 강화

새해를 맞아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격적 서비스로 수익 확대에 나선다. 영역을 확대해 수익성을 늘려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다양한 영역으로 눈을 돌리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네이버는 모든 콘텐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 검색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창작자 중심의 검색 서비스인 인플루언서 검색은 여행과 뷰티 등 창작자가 직접 만든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볼 수 있다.

검색 창에서 여행과 뷰티 키워드를 검색하면 키워드챌린지에서 해당 키워드에 참여한 창작자들이 등록한 콘텐츠가 우선 노출된다. 특히 이용자들은 키워드챌린지를 확인한 뒤 관심 있는 창작자를 발견하면 팬으로 등록해 알림 등으로 새로운 콘텐츠도 확인이 가능하다.

네이버 인플루언서 검색 베타서비스.

네이버는 1분기 베타 테스트를 통해 상반기 중 인플루언서 검색을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인플루언서 검색이 정식으로 오픈되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창작자들까지 끌어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올해 모빌리티와 페이 등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한다. 우선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택시 출시 5년차를 맞아 택시는 물론 대리운전, 주차, 전기자전거, 내비게이션 등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에 맞춰 택시 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이용자에게는 보다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T벤티는 올해 이용자 경험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둔다.

카카오페이는 지금까지 확장한 금융 서비스들을 사용자 중심으로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누적 가입자 수 3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를 통해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발맞춰 실시간 검색어와 댓글 등의 개편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네이버 모바일에서 실시간 검색어를 동일 연령대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카카오 역시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샵탭 내 실검을 폐지했으며 2월에는 포털 '다음'의 '실시간 이슈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U+tv 모델들이 'U+tv 아이들나라 3.0'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LG U+ "U+tv, 키즈 콘텐츠가 효자"

고객 47% "영유아용 '아이들나라' 보기 위해 가입"
유해 영상물 차단·다양한 무료 콘텐츠 등 장점 꼽아

LG유플러스 U+tv 이용자의 절반이 영유아 특화 서비스인 '아이들나라'를 이용하기 위해 IPTV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LG유플러스가 지난해 U+tv를 이용 중인 75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서비스 가입 이유에 대해 '아이들나라'라고 응답한 가구는 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가입 혜택' 때문이라고 응답한 고객이 44%로 2위를 기록했으며, 모바일 '결합할인 혜택'이라고 응답한 고객은 33%로 그 뒤를 이었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온라인상 언급량 56%, 내용 호감도 46.9%로 IPTV 키즈 서비스 가운데 매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나라를 월 5회 이상 이용한 고객의 해지율은 5회 미만 이용 고객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 응답자 중 5~7세 자녀를 둔 부모 고객들은 △유해 콘텐츠 등 시청 고민을 유튜브 키즈로 해소 △타사 대비 다양한 무료 콘텐츠 △대형 출판사 전집 위주가 아닌 베스트셀러를 구연동화 작가가 직접 읽어주는 리딩 방식 △누리 과정의 연령대별·과정별·월별 체계적 구성 등을 아이들나라의 장점으로 꼽았다.

LG유플러스는 사은품, 결합할인 등의 혜택이 가입과 해지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IPTV 시장에서 아이들나라와 같은 특화 서비스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학계와 교육계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디어 교육방법으로 아이들나라 서비스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가 주관하는 정기 학술대회와 학회지에서 아이들나라는 주요 연구 사례로 소개됐다.

시범 교육기관과 협력해 아이들나라 맞춤 교육 콘텐츠와 누리과정 기반 콘텐츠 등을 실제 유아 수업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올해 누리과정 개편을 맞아 연구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교육 서비스 리더십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들나라는 지난해 IPTV 가입자 및 매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맡아 U+tv는 지난해 3분기 기준 가입자 435만 명, 7578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아이들나라의 AR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케이블TV에도 아이들나라를 적용해 LG헬로비전 고객들도 특화 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고 만족하는 키즈 서비스 1위로 지속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천리안 위성 2B' 내달 발사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로 이송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이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성은 천리안 위성 2B로 흔히 불린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출발한 천리안 위성 2B호는 항우연이 특별 제작한 무진동 항온항습 위성용 컨테이너에 실려서 이송된다. 우선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항공운송을 통해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에 소재한 기아나 우주센터로 이동할 계획이다.

발사일 전까지 상태 점검, 연료 주입,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준비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2월 19일 오전 7시 14분경 (현지시간 기준 2월 18일 19시 14분경) 아리안스페이스사의 아리안(Ariane)-5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과기부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

전국 어디서나 요청하면 의무 제공… KT, 서비스 사업자로

이달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된 데 따라 전국 어느 지역에서건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나라는 한국이 8번째다.

보편적 서비스(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다.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2016년부터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해왔다.

보편적 서비스 사업자는 KT다. 과기부는 인터넷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나라 중에 한국은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급 인터넷을 제공할 예정이다.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은 국민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하면 된다.

우선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하면 현재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빅3’에 현대百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흥행 예고’

계약 만료 앞둔 T1 8개 구역
이달 중 입찰 공고 발표 예정
롯데·신라·신세계 경쟁 속
현대百 참여도 관전 포인트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 대상 구역

구역	품목	현 사업자
DF2	화장품·향수	신라
DF3	주류·담배	롯데
DF4	주류·담배	신라
DF6	패션·잡화	신라
DF7	패션·잡화	신세계
DF9	전 품목	SM
DF10	전 품목	시티플러스
DF12	주류·담배	엔타스듀티프리

※ 출처: 인천공항공사

연초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시내 면세점 입찰이 사상 처음으로 유찰됐던 것과 달리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 자체가 면세업체의 인지도·신뢰성·사업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찰을 두고 업체 간 치열한 눈치 싸움이 한창이다. 기존 사업자인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뿐 아니라 2018년부터 면세사업을 시작한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이번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흥행이 예상된다.

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내년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 사업권 8개 구역에 대한 입찰 공고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께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었지만, 사업권 구성, 임대료 산정, 계약 기간 등 공고 내용을 두고 관세청과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길어지며 해를 넘기게 됐다.

이번 입찰 대상 구역은 롯데(DF3 주류·담배), 신라(DF2 화장품·향수, DF4 주류·담배, DF6 패션·잡화), 신세계(DF7 패션·잡화) 등 대기업 구역 5곳과 SM면세점(DF9 전 품목), 시티플러스(DF10 전 품목), 엔타스듀티프리(DF12 주류·담배) 등 중소기업 구역 3곳 등 총 8곳이다. 일각에서는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운영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면세점 운영 계약 기간, 사업권 구성, 임대료, 심사 기준 등 입찰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인천공항은 상업시설 임대 등 비항공 수익의 90% 이상이 면세점 임대에서 발생한다. 그만큼 공항 면세점 임대료가 높아 면세업체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수익이 낮음에도 면세업체가 입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이유는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경험은 해외 진출 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전 세계인이 오가는 곳인 만큼 인지도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또 공항 면세점에 입점하고 싶어 하는 브랜드와의 협상력도 높아지고, 운영하는 면세점이 많을수록 저렴하게 제품을 매입할 수 있다.

이번 입찰에서 접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는 곳은 매출이 가장 높은 화장품·향수 구역이다. 현재 신라면세점이 운영 중인데 신라면세점은 이를 포함해 현재 운영 중인 3개 구역 수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라면세점 측은 “싱가포르 창이공항·홍콩 첵랍콕공항 등 아시아 3대 권역에서 유일하게 화장품·향수 구역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임을 강조해 사업권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사업권 자진 반납 후 떨어진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대한 많은 사업권 확보에 도전할 전망이다. 롯데면세점은 2017년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인천공항 면세점 3개 구역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다. 이후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의 시장 점유율은 42%에서 39%로 하락했고, 업계 2위인 신라면세점은 점유율 30%까지 오르며 격차를 좁혔다.

신세계면세점은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사업권을 이어받고 시장 점유율을 18%까지 높인 만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업권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운영자인 롯데·신라·신세계 외에 2018년 면세사업을 시작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이번 입찰에 참여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일각에서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서울 강남에 이어 동대문에 시내 면세점을 운영할 예정인 만큼 사업 구색을 갖추기 위해 입찰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면세점 영업손실이 수백억 원에 달해 공격적인 베팅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입찰 공고가 나면 자세히 검토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찰에서는 업계 현황이 밝지 않은 만큼 무리한 베팅을 시도할 업체가 드물 것으로 보인다. 시내 면세점이 중국 보따리상을 중심으로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출혈 경쟁을 일삼는 탓에 매출은 고공행진이지만 마케팅 비용이 막대해 수익성은 악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항 면세점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 수익을 내기 어려워서 시내 면세점에서 흑자를 내면 공항 면세점의 적자를 메우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시내 면세점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마케팅 비용 늘리기로 과다경쟁하는 기형적인 상황이라 과거처럼 시내 면세점에서 공항 면세점의 적자를 메울 수 없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감당하지 못할 임대료로 베팅하는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미선 기자 only@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말로 주문” 롯데 AI 스피커 ‘샬롯홈’

백화점·슈퍼·홈쇼핑 등 이용 가능
상반기 롯데시네마 예매 서비스도

롯데쇼핑이 음성 주문이 가능한 인공지능(AI) 보이스 플랫폼을 선보이며 e커머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롯데쇼핑은 자사 임직원 가족과 VIP 고객을 대상으로 AI 스피커 ‘샬롯홈(Charlotte Home·사진)’을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 시험 과정에서 실제 소비자와 맞닥뜨리며 최적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다.

샬롯홈은 롯데쇼핑이 보유한 오프라인 경쟁력을 DATA 통합을 통해 온라인상에서도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터치에서 보이스로 이동하고 있는’ 커머스 패러다임을 대비해 준비한 샬롯홈은 ‘디스플레이 기능’이 접목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것이다.

터치스크린이 적용된 샬롯홈은 6000 mAh 배터리가 탑재돼 있어 이동성 측면도 고려했다. 충전 후에는 침실, 주방뿐 아니라 전원이 없는 곳에서도, 와이파이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질 좋은 음악 감상을 위해 우퍼 스피커를 탑재한 것도 강점이다.

현재 샬롯홈에서는 롯데백화점을 비롯해 롯데슈퍼, 롯데홈쇼핑, 롯데리아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는 모두 주문 및 이용할 수 있다. 이르면 상반기 내에 롯데시네마 예매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여기에 순수 국내 기술로 탄생한 스타트업들의 콘텐츠도 가미됐다. 이를테면 ‘이지에이치엘디’가 제공하는 요리 레시피, ‘포워드퓨처’가 제공하는 교육 뉴스, ‘리니어허브’가 개발한 영상통화 서비스(예정) 등이 담겼다. 날씨, 유튜브, 팟캐스트, 일정관리, 사전과 같은 콘텐츠 모두 샬롯홈의 보이스 인터페이스와 화면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롯데 보이스 플랫폼의 가장 큰 경쟁력은 지속 확장 가능한 콘텐츠에 있다. 쇼핑을 비롯해 날씨 확인, 메모, 스케줄 관리와 같은 똑똑하고 편리한 기능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샬롯홈은 내부 및 VIP 고객에게 우선 보급돼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오프라인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샬롯홈이 롯데의 유통 콘텐츠뿐 아니라 비유통 계열의 다채로운 서비스까지 소비자 개인 취향에 맞춰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킨다는 복안이다.

박미선 기자 only@

롯데百, 경자년 기념 와인 판매 5일 서울시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와인매장에서 한 고객이 호주 와이너리 ‘울프블라스’에서 출시한 경자년 상징 쥐가 그려진 ‘울프블라스 골드라벨’ 와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쇼핑

소비자가 주목하는 새해 키워드 건강·다이어트

랄라블라 ‘건강생활백서’·홈플러스 ‘건강박람회’ 행사 진행

경자년 새해를 맞아 ‘건강’과 ‘다이어트’를 새해 목표로 세운 소비자가 크게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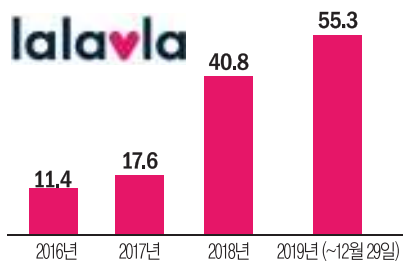
5일 롯데마트의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을 살펴보면 2019년(1~12월 24일 누계)은 전년 대비 21.9% 신장했다. 월별로는 지난해 12월의 경우는 45.6%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특히 건강기능식품군 매출 비중은 통상 11월부터 1월까지 연 전체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관련 상품 수요가 높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H&B(헬스앤뷰티) 랄라블라에서도 관련 제품 매출이 크게 늘었다. 랄라블라의 건강·다이어트 상품 매출 증감률은 11월 82.2%를 기록했고, 12월에는 159.7%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연초부터 건강·다이어트 상품 관련 기획전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한창이다.

홈플러스는 8일까지 ‘건강박람회’를 열고 전국 매장에서 112종의 건강 관련 식품을 한곳에서 선보인다. 대표 상품은 △종근당건강 랏토핏 생유산균 골드 △고려은단 헬스케어 퀄리티 멀티 비타민 △한국화이자 센트룸 등이다. 또한 다이어트를 결심한 고객을 위해 ‘행운 네잎클로버 샐러드’를 1990원에 선보이고, 간편 채소 상품인 ‘이색믹스 더블’은 4990원에 판매한다.

랄라블라 건강기능·다이어트 상품 연도별 매출 신장률 (단위: %, 전년 대비)



랄라블라 건강기능·다이어트 상품 월별 매출 신장률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출처: GS리테일

롯데마트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PB(자체브랜드) 해빗(Hav’eat) 신제품으로 ‘Hav’eat 백세 혈행 관리 홍국&징코’와 다이어트 상품인 ‘Hav’eat 다이어트 인아웃 콜레우스포스콜리’, ‘히알루론산 앰플’ 등을 내놨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업계 최초로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브랜드 ‘라라스윗(L-alasweet)’을 출시했다. 이 제품의 열량은 파인트(474㎖) 한 통에 240~280㎉로 일반 아이스크림의 ¼ 수준이다.

랄라블라에서는 몸속 건강과 피부 건강, 다이어트를 한 번에 챙기자는 콘셉트로 ‘2020건강생활백서’ 행사를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 행사에는 건강기능식품과 다이어트 관련 30여 상품을 한 곳에 모아 부담 없이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기간 ‘레모나 결콜라겐 레몬향 60포’는 35% 할인된 1만2800원에, 다이어트 브랜드 GRN 상품은 최대 40% 할인한다.

남주현 기자 jooh@

홈플러스, 도심형 개인 창고 서비스 확대

부산·수원에 ‘더스토리지’ 오픈

홈플러스는 지난해 7월 첫선을 보인 도심형 개인 창고 서비스 ‘더 스토리지 위드 홈플러스(THESTORAGE with Home-plus)’를 부산 서면점과 수원 원천점에 잇달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더 스토리지’는 계절 가전이나 의류, 이불, 취미 용품, 소규모 사무실의 각종 서류나 비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 창고 서비스다. 약 5개월가량 운영 중인 일산점은 현재 이용률이 약 85%에 육박할 정도로 뜨거운 고객 반응까지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문을 연 서면점은 약 211㎡(64평) 규모로 구성됐다. 현재까지 선보인 매장 중 가장 큰 규모로, 기존 선보였던 스몰, 미디엄, 라지 세 가지 사이즈 보관함 외에 처음으로 엑스-라지(약 1.6평) 사이즈까지 마련했다. 이 공간은 침대 매트리스 등 대형 가구 및 가전을 넉넉히 보관할 수 있다.

이달 2일 오픈한 수원 원천점은 약 135㎡(41평) 규모로 이뤄졌으며 1호점인 일산점과 똑같이 스몰, 미디엄, 라지 등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이 서비스는 최소 1개월 단위로 이용 가능하며 가격은 스몰 5만9000원, 미디엄 8만9000원, 라지 13만9000원이다. 3·6·12개월 단위로 약정 할인도 제공된다.

조수현 홈플러스 서비스사업 이노베이션팀장은 “홈플러스 매장은 도심 내 위치해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부산, 수원 등 대도시 위주로 ‘더 스토리지’ 서비스를 확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새해 선물’ 무상증자 나선 상장사들

“유동성 확보·주주가치 제고” 증자 시행·예정 상장사 15곳
한국맥널티 주가 55% 상승 등 5개 기업 무증 효과 ‘톡톡’
경동도시가스·미래에셋벤처투자 ‘권리락’ 기준보다 낮아

새해를 맞아 주가 정체구간을 벗어나려는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증자를 시행한 기업들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했지만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 내로 무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상장사는 코스피, 코스닥시장 모두 합쳐 15개다. 코스피에서는 유한양행,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JW중외제약 등 9개사가 있었고, 코스닥 시장에선 한국맥널티, 세경하이테크, 위지윅스튜디오 등 6개다.

증자 결정은 연말에 집중됐다. 지난해 하반기 무상증자를 결정하거나 실시한 상장사는 총 29개인데, 이 중 절반이 넘게 연말에 실시된 셈이다. 주식 수를 늘리고 유동성을 부여해 정체된 주가를 새해부터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증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영상 특수효과(VFX) 전문기업 위지윅스튜디오다. 지난달 10일 보통주 1주당 신주 2주(200%) 배당을 결정했다. 증자를 통해 주식 총수는 1842만7014주이며 주권 상장 예정일은 23일이다.

회사 측은 “현재 주가가 기업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저평가됐다고 판단해 주식 유동성 확보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상증자 기업

기업명	공시 당일 주가 상승률	주당 배당 주식수
그린케미칼	0.77%	0.2주
경동도시가스	0.60%	0.25주
유한양행	2.28%	0.05주
종근당	0.33%	0.05주
한국맥널티	29.56%	1주
이노메트리	5.86%	1주
미래에셋벤처투자	9.15%	0.5주

세경하이테크, 한국맥널티, 이노메트리는 보통주 1주당 신주 1주(100%)를 배당했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선 경동도시가스가 보통주 1주당 0.25주를 배당했고, 유한양행·종근당·종근당바이오(0.05주), JW중외제약·JW홀딩스(0.03주)·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0.02주) 등 순이었다.

무상증자는 회사의 잉여금으로 주식을 발행해 주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증자 방식으로, 시장에선 통상 호재로 인식된다. 무증을 실시하면 주가가 낮아져 ‘싸게 보이는’ 착시현상이 수반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동성이 늘어나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무상증자를 결정한 15개사 모두 공시 직후 주가가 올랐다. 다만 증자 비율이 높은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 움직임이 코스피 상장사보다는 훨씬 컸다. 코스피 9개사의 주가 상승률은 평균 1.10%에 그쳤지만, 코스닥 6개사의 상승폭은 11.94%에 달했다.

한국맥널티는 무상증자를 공시한 당일인 지난해 11월 28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8400원대에서 1만1000원대로 뛰어올랐고, 위지윅스튜디오도 13.11% 상승했다. 세경하이테크(7.67%), 미래에셋벤처투자(9.15%), 신일제약(6.27%), 이노메트리(5.85%)도 5% 넘는 상승폭을 보였다.

코스피 시장에선 한미사이언스가 2.2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유한양행(2.28%), JW홀딩스(1.29%), 한미약품(1.02%)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새해 맞이 무증’ 효과가 오래 가지는 못했다. 증자 후 신주배정권이 없어진 시점에서 주가를 조정하는 것을 뜻하는 ‘권리락’ 이후 종목별로 주가 추이가 갈렸다.

무상증자를 결정한 종목 15개 가운데 현재까지 증자를 시행한 기업은 8개다. 이 중 현재 주가(2일 종가 기준)가 권리락 기준 가격보다 상승한 기업은 5개였다. 한국맥널티는 기준 가격 5830원에서 9090원으로 55.6% 오르며 무증 효과를 톡톡히 봤고, 위지윅스튜디오, 이노메트리 등도 소폭 올랐다. 반면 경동도시가스, 미래에셋벤처투자, 세경하이테크는 권리락 기준 가격보다 낮은 주가를 형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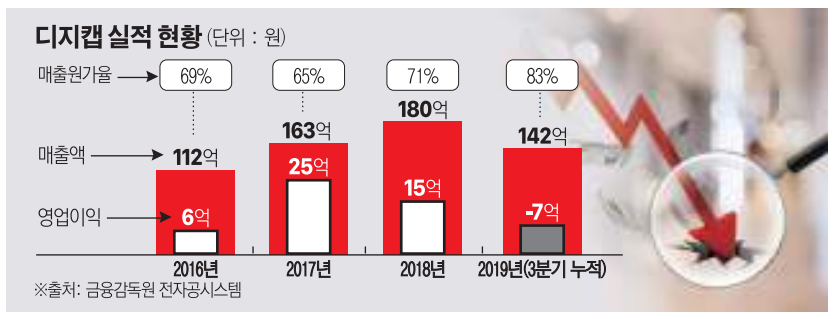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무상증자는 어디까지나 유동성을 장려할 수 있을 뿐 기업 본질적인 가치에는 변화를 주지 못한다”라면서도 “배당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만큼 상장사 입장에선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연말에 많이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상장 후 외형 커졌지만 수익성은 ‘뚝’

상장사 재무 분석

디지캡



매출원가율·부대비용 늘어
작년 3분기 연속 적자행진
美 UHD 방송 상용화 앞둬
해외시장 실적 개선 기대

디지캡이 꾸준한 매출 성장세와 달리 수익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열티 매출이 증가했지만 매출원가율이 높을 뿐더러 기타 부대비용도 함께 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측은 올해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수익성 회복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디지캡은 2000년에 설립된 방송 보안 솔루션 기업이다. 2014년 코넥스에 상장한 후 2018년 9월 코스닥으로 이전했다. 주요 제품은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시스템용 솔루션인 CAS(수신제한시스템)와 DRM(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 솔루션이다.

상장 이래로 매년 외형은 성장했지만 2018년부터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매출액은 2014년 97억 원에서 2018년 180억 원까지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014년 8억 원에서 2017년 25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2018년엔 15억 원으로 줄기 시작하더니 작년엔 3분기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매년 상승한 매출원가율이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매출원가율은 2014년 65%에서 2018년 71% 수준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매출총이익률은 35%에서 29%로 감소했다. 또 매출액은 2014년 상장 당시보다 2018년엔 86% 증가했지만, 매출원가는 10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가 높아진 배경엔 매출 구성의 변화가 이유로 꼽힌다. 그동안 주요 매출 구성은 용역매출로, 2015년엔 전체 매출에서 86%를 차지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 용역 매출보다 높은 원가율을 보이는 로열티 매출의 비중은 13%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매년 로열티매출의 비중이 커지면서 작년 3분기(54%)엔 용역매출(46%)을 역전했다. 결국 로열티매출이 늘면서 외형은 커졌지만 지급수수료도 증가해 전체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셈이다.

이동륜 KB증권 연구원은 2019년 3분기(누적) 실적 부진에 대해 “원가율이 낮은 솔루션 매출액 비중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원가율이 높은 보호 솔루션 영역의 로열티 매출액 비중 증가가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부터 미국도 지상파 UHD 방송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어 관련 시장의 확대로 방송 솔루션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연 기준 추산 시 2019년 실적은 흑자가 확실하다”며 “매출 인식이 주로 4분기에 집중돼 있어 분기 실적이 계절적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부터 영업이익이 감소세를 보였는데, 로열티매출이 늘면서 관련 지급 수수료도 증가했고, 해외 진출 비용과 사옥 이전 관련 감가상각비 등 관련 부대비용도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수익성 회복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시장 실적이 개선된다면 관련 비용도 상쇄하고, 매년 지출 규모도 점차 감소하면서 원가가 개선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도이치모터스, 자본 3년 새 60% ‘쑥’

호실적·토지 가치 재평가 영향
작년 3분기 총자본 2663억
300%대 부채비율 183%로 급감

도이치모터스 재무 추이 (단위 :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3분기 누적)
순이익	-26억	43억	347억	487억
재평가잉여금	0억	772억	651억	426억
자본총액	968억	1660억	2009억	2663억

※출처: 금감원 전자공시스템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의 자본 규모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실적과 토지 가치의 재평가 덕분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총자본은 2663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2.54% 증가했다. 2016년 968억 원에서 이듬해 166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000억 원대를 넘어섰다. 이후에도 증가세는 지속되면서 최근 3년 새 60.36% 늘었다.

2017년 자본이 크게 늘었던 데는 도이치오토월드의 토지 재평가 영향이 크다. 당시 도이치모터스는 자동차 멀티플렉스 쇼핑몰을 표방하는 도이치오토월드를 준비 중이었고, 이와 관련한 분양수익이 재무상에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770억 원(법인세 제외)이 넘는 토지 재평가잉여금이 자본 항목에 포함됐다.

재평가잉여금은 지난해까지도 꾸준히 인식되면서 자본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기에 흑자 전환도 한몫했다. 2016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각각 20억 원, 26억 원을 기록했던 도이치모터스는 2017년 들어 각각 117억 원과 43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18년엔 영업이익 506억 원과 당기순이익 347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면서 이익잉여금이 대폭 증가했다. 이익잉여금은 2016~2017년 연속 200억 원대에 머물렀지만 2018년엔 74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불어났다. 이로 인해 2018년 총자본이 2000억 원을 돌파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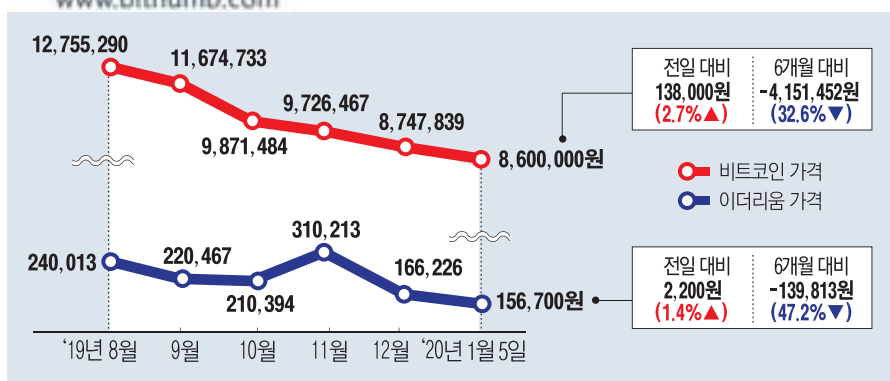
지난해의 경우 3분기까지의 순이익이 487억 원으로 이미 전년 기록을 넘어선 터라 잉여금과 총자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적과 유형자산 가치의 향상 속에 부채는 줄여 나가고 있다. 2016년 300%를 넘었던 부채비율은 183%까지 떨어진 상태다. 다만 유동비율은 2018년 114%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다시 87%까지 감소했다. 유동부채에 포함되는 단기차입금 항목이 2562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000억 원 이상 증가한 탓이다.

한편 앞서 토지 재평가를 받았던 도이치오토월드는 올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선 준공 이후 도이치코터스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0년 1월 5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258,500	900 (0.3%▲)	모네로	59,800	1,550 (2.7%▲)
리플	225	2 (0.9%▲)	비트코인골드	6,225	25 (0.4%▲)
라이트코인	49,610	640 (1.3%▲)	이더리움 클래식	5,610	200 (3.7%▲)
대시	56,050	5,850 (11.7%▲)	퀀텀	1,897	41 (2.2%▲)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작년 MTS 거래비중, HTS 첫 추월

40.66% 모바일 거래… 금액은 영업점 단말기 이어 2위

주식 거래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증권시장 비중 1위를 차지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 거래량을 거래 수단별로 집계한 결과 MTS 비중은 40.66%로 HTS(38.89%), 영업점 단말기(10.44%), ARS(0.23%)를 제치고 전체 1위에 올랐다.

지난해 코스피 거래량 기준 1위는 HTS(39.65%) 몫이었다. MTS는 35.58%로 2위를 기록했다.

코스피 거래금액 기준으로도 MTS는 작년 23.67%를 차지해 HTS(21.66%)를 처음 앞질러 영업점 단말기(31.71%)에 이어 비중 2위로 상승했다.

이 기간 코스피 개인 투자자가 MTS를 이용한 거래 비중은 거래량 기준으로는 49.51%,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49.59%에 이르러 개인 거래의 거의 절반을 모바일이 차지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MTS의 비중은 거래량 기준 44.79%, 거래금액 기준 40.99%로 HTS(거래량 43.61%, 거래금액 40.69%)를 역시 처음으로 제쳐 전체 1위를 기록했다.

MTS의 비중 확대는 편의성 덕분으로 풀이된다.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주식거래를 할 수 있고, 지문·홍채·얼굴 등 생체인식을 통해 인증 방식이 간편해진 덕분이다.

박기영 기자 pgy@

임대료 오르고 매출은 줄어…늘어나는 빈 점포

한때 떴던 'O리단길' 상권의 몰락

경리단길 매출 2년 새 절반 줄어
중대형상가 점포 4곳 중 한 곳 비어
서울 평균 공실률 3배 훌쩍 넘어
"임대료 인하 등 생존 방식 찾아야"

서울에서 '잘나간다'는 상권의 실속이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른바 '뜨는' 상권을 일컫는 명칭인 'O리단길' 얘기다. 인위적인 '길 이름 붙이기'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박모 씨는 2년 전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브런치 카페를 열었다. 잠실 상권과 가까우면서도 조용한 게 박 씨 마음에 들었다. 가게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송파동 일대가 '송리단길'(송파동과 경리단길의 합성어)로 유명해졌다. 롯데월드와 석촌호수 방문객들이 식사를 위해 송리단길로 몰려왔다. 유명 음식점들이 분점을 내며 송리단길 상권은 더욱 뜨거워졌다.

박 씨 가게의 매출은 개업 직후보다 늘었을까.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유동인구는 늘었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졌으니까요." 박 씨가 가게를 열었을 무렵 송리단길의 카페는 11곳이었지만 이젠 28곳으로 늘었다. 나가는 돈은 점점 늘어났다. 송리단길 일대 임대료는 박 씨가 처음 가게를 마련했던 2017년엔 3.3㎡당 월 10만 원가량이었지만 올해는 15만 원까지 올랐다.

송리단길의 적잖은 가게들이 박 씨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송리단길의 외식업 점포 수는 2017년 83곳에서 지난해 2분기 113곳으로 늘었다. 젊은 층이 자주 찾는 카페와 분식 전문점(7→22곳)이 가장 많이 늘었다.

가게는 늘었지만 매출은 뒷걸음질쳤다. 지난해 2분기 송리단길 외식업 점포의 평균 매출액은 한 달에 약 1329만 원이었다. 서울시 평균(1753만 원)에도 못 미친다. 2년 전(1495만 원)보다도 100만 원 넘게 줄었다.

'O리단길'이란 별명이 붙은 상권은 서울에서만 열 곳이 넘는다. 대부분 송리단길과 비슷한 고민에 빠져있다. 일단 유명해지면 사람이 몰리지만, 곧 경쟁 점포가 늘고 임대료는 올라간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출은 감소한다.

마포구 망원동 '망리단길'의 외식업 점포 수는 2017년 92곳에서 112곳으로 늘었지만, 평균 월 매출액은 2210만 원에서 1586만 원으로 28% 감소했다. 용산구 한강로2가 '용리단길' 식당의 매출액도 1833만 원에서 1778만 원으로 3% 줄었다.

상권이 가장 심각하게 위축된 곳은 원조격인 용산구 이태원동 '경리단길'이다. 2017년만 해도 경리단길 상권의 외식업 평균 매출은 한 달에 2030만 원에 이르렀지만, 지난해엔 1168만 원으로 42% 급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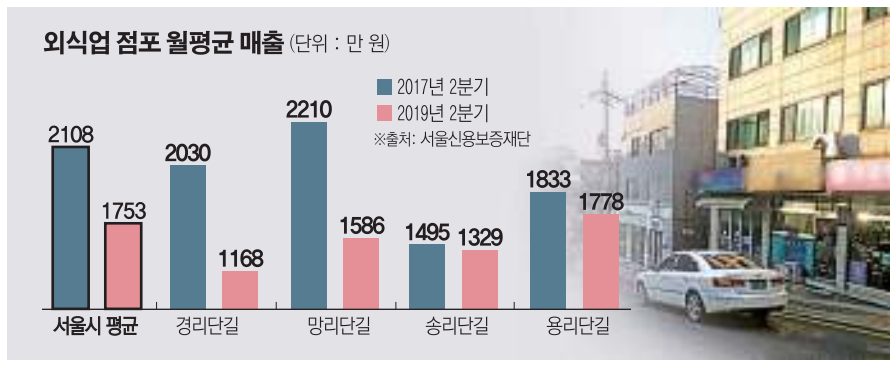
상가도 비어가고 있다. 경리단길에선 지난 1년 동안 7곳이 문을 열었지만 17곳이 폐업했다. 지난해 3분기 이태원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6.3%로 서울 평균(7.5%)의 세 배가 넘었다. 상가 점포 네 곳 중 한 곳은 비어있다는 뜻이다. 특히 필리핀·알제리 대사관이 있는 경리단길 언덕 끄트머리에선 영업 중인 가게보다 임대 딱지를 붙인 가게가 더 많았다.

경리단길에서 수십 년째 중국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도 얼마 전까지 폐업을 고민했다. 그는 영업을 당분간 계속하는 대신 직원 5명 가운데 2명을 내보냈다. 건물주에게 어려운 사정을 호소했지만, 월세를 10만 원 낮추는 데서 만족해야 했다. 김 씨는 "경리단길이 유행할 때 몰려온 가게들이 유행이 끝나자 줄줄이 문을 닫았다. 그 바람에 몇 년째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O리단길이라고 유명해지더라도 홍보가 잘된 소수 점포를 제외하면 나머지 점포는 과당 경쟁 등으로 매출을 올리기 쉽지 않은 구조다"며 "반면 유명세를 치르면서 임대료는 올라가고 갈수록 경영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상인들은 상권의 장기적인 생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파동 S공인 관계자는 "인위적인 이름 붙이기론 상권이 얼마나 활기를 띨지 알 수 없다"며 "임대료를 낮춰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 상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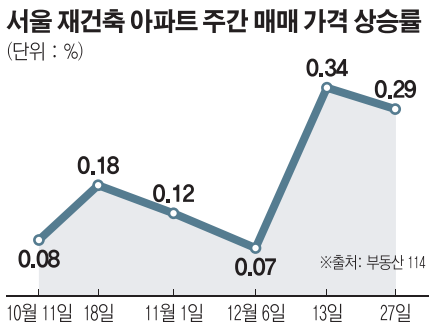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보유세 폭탄에 재초환 지뢰까지…강남 재건축 '된서리'

연초 급매물 쏟아지며 시세 '급락'
거래도 동반 실종…목동도 '잠잠'

고강도 부동산 규제 방안이 담긴 12·16 대책 발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실망 매물이 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전용면적 84㎡형 매매 시세는 최근 급매 물건이 늘며 35억 원까지 떨어졌다. 40억 원까지 육박했던 지난해 여름보다 5억 원 가까이 내렸다. 사업비만 10조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선 그간 시장의 관심이 뜨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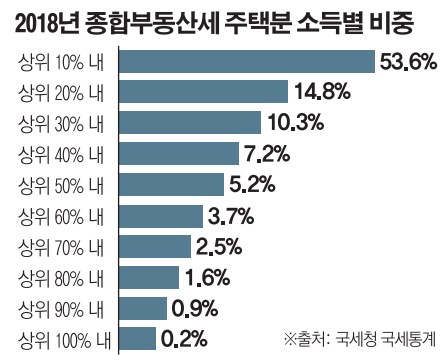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형 시세도 19억2000만 원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형 호가는 23억 원까지 올랐다. 몸값이 20억 원을 넘어섰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형도 지금은 다시 19억 원대 물건이 늘고 있다.

지난해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된서리를 맞은 큰 이유는 12·16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강남 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렸다. 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으로 수요는 억눌렀다. 소송과 건축 심의 지연 등으로 재건축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거래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실망 매물'은 더욱 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으로 가구당 평균 4억 원 이상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역시 조합이 일부 조합원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으면, 잠실주공5단지와 비슷한 액수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는 곳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다. 목동 6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한 게 가장 큰 호재다. 여기에 1~3단지에서도 용도지역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돼 용적률 상한이 높아졌다. 이 같은 호재에 지난해 10월만 해도 15억 원대에 거래되던 6단지 전용 95㎡형은 18억5000만 원까지 호가가 뛰었다. 다만 이 같은 호재와 12·16 대책 등 악재가 뒤섞여 있어 실제 거래는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인근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박종화 기자 pbell@



2018년 주택분 종부세 상위10%가 53.6% 냈다

비중 줄었지만 납부액은 늘어

2018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분의 절반 이상이 납세액 상위 10%에서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종부세 주택분의 총액은 4431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53억5800만 원(14.3%)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상위 10%가 전체의 53.6%에 해당하는 2374억300만 원을 부담했다.

10분위는 납세자의 자산 규모나 주택 규모가 아닌 주택분 종부세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나눈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납세자 인원은 4만6352명이다. 단순 평균으로 1인당 512만1740원을 부담한 셈이다. 전년(2114억8100만 원·54.5%)보다 비중은 줄었지만 납부액은 259억2200만 원 늘었다. 상위 20%의 주택분 종부세는 654억1300만 원으로 14.8%의 비중을 차지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납부액은 100억7100만 원 늘었고, 비중도 0.5%포인트 확대됐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 세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만큼 앞으로 고액 세금 납부자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세제 개편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포인트 올리고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선을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법 개정 후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서지희 기자 jhsseo@

금주의 분양캘린더

주택 청약시스템의 이관을 앞둔 이번 주 전국에서 아파트 7700여 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전국 14개 단지에서 7727가구(총 가구수 기준)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파라곤 센트럴파크'를 비롯해 대구 중구 삼덕동 '빌리브프리미어', 충남 당진시 읍내동 '당진아이파크' 등이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모두 16곳에서 발표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e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를 비롯해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유림 노르웨이숲'과 동래구 온천동 '더샵 온천 헤리티지' 등이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16곳에서 이뤄진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 파크 프레스티지'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 대구 달서구 본동 '빌리브클라세' 등이 계약을 진행한다.

분양시장이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으로 잠시 휴식기에 들어가면서 이번 주 문을 여는 견본주택은 없다.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말 신규 청약 모집공고를 마감했다.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주택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는 2월께 분양시장이 재개될 예정이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1/6(월)	접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 1순위(기타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소새울역신일해피트리 1순위
			용인시	역북동	용인명지대역서희스타힐스 2순위
		부산	남구	우암동	이안오션파크W 2순위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중동럭키골든스위트 2순위
		대구	달서구	본동	달서코아루더리브 (~1/7) ♣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사송신혼희망타운(A1) (~1/7)
		세종	세종시	금남면	새나루마을10단지(4-2M3)신혼희망타운 (~1/7)
	발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e편한세상홍제가든플라츠
		경기	파주시	동패동	파주운정3A26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유림노르웨이숲
	계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파크프레스티지 (~1/8)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주안 (~1/10)
			부평구	산곡동	부평두산위브더파크 (~1/8)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신안인스빌어반퍼스트(AB2) (~1/8)
		대구	달서구	본동	빌리브클라쎄 (~1/8)
			중구	수창동	대구역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 (~1/8)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계림아이파크SK뷰 (~1/8)
1/7(화)	접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 2순위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소새울역신일해피트리 2순위
			성남시	고등동	성남고등S3(공공분양) 1순위(당해지역)
			시흥시	장현동	시흥장현A7(공공분양) 1순위
		대구	중구	삼덕동2가	빌리브프리미어 1순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여수웅천마린파크애시앙2단지(5-1) 1순위
					여수웅천마린파크애시앙2단지(5-2) 1순위
	발표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안에코르(공공임대)
	계약	경기	수원시	교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1/10)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대광로제비앙(A44) (~1/9)
		인천	부평구	부개동	e편한세상부평역어반루체 (~1/9)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모아엘가그랑데(AB11) (~1/9)
1/7(화)	계약	부산	영도구	남항동1가	남항동더킹페로스 (~1/9)
		광주	남구	압촌동	남구도시첨단제일풍경채(D2) (~1/9)
		충북	청주시	가경동	청주가경아이파크4단지 (~1/9)
1/8(수)	접수	경기	성남시	고등동	성남고등S3(공공분양) 1순위(기타지역)
			시흥시	장현동	시흥장현A7(공공분양) 2순위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파라곤센트럴파크(AA2) 1순위
		부산	남구	우암동	e편한세상북항마린브릿지(민간임대)(~1/10)
		대구	중구	삼덕동2가	빌리브프리미어 2순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여수웅천마린파크애시앙1단지(5-1) 2순위
					여수웅천마린파크애시앙2단지(5-2) 2순위
	발표	대구	달서구	본동	달서코아루더리브 ♣
	계약	대구	달서구	본동	달서코아루더리브 ♣
			중구	태평로2가	힐스테이트대구역 (~1/10)
1/9(목)	접수	서울	성북구	장위동	H HOUSE장위(민간임대) (~1/10)
		경기	성남시	고등동	성남고등S3(공공분양) 2순위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파라곤센트럴파크(AA2) 2순위
	발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동지에스타워
		경기	파주시	와동동	파주와동A1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부산	동래구	온천동	더샵온천헤리티지
		대구	달서구	본동	달서코아루더리브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라미에르
1/10(금)	발표	경기	용인시	역북동	용인명지대역서희스타힐스
			화성시	산척동	화성동탄2A77-2(국민임대)
		부산	남구	우암동	이안오션파크W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중동럭키골든스위트
		충남	보령시	웅천읍	보령웅천(국민임대)
					보령웅천(행복주택)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오리온, 前 사장 상대 38억 손배소 2심 패소

〈조경민 전략담당 사장〉

재판부 "형사재판 후 증거 추가 스포츠토토 투표용지 제작 등 허위 발주 인정하기 어려워" 회사 승소 1심 판결 뒤집어

오리온그룹이 계열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당시 경영 전반을 총괄한 조경민 전략담당 사장을 상대로 낸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최근 스포츠토토의 소송수계인(소송을 이어받은 자) 오리온홀딩스가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3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2017년 오리온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가운데 30억 원 상당에 대해 조 전 사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민사소송은 조 전 사장의 과거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와 연결된다.

조 전 사장은 2007년 11월~2010년 12월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표 용지와 롤 영수증을 허위로 주문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더불어 2006년 3월~2011년 1월 형이 운영하는 업체에 경기장 행사와 외부 프로모션 행사를 몰아주고 정상적인 행사비보다 과대계상한 금액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았다.

조 전 사장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5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9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체육진흥공단은 조 전 사장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스포츠토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토토는 이 소송에서 패소해 체육진흥공단에 22억9400만 원을 물어줬다. 더불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약 17억 원을 추가 납부했다.

이에 스포츠토토는 조 전 사장에게 투표용지와 롤 영수증 과다계상 비용, 행사비, 가산세 납부 등으로 3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조 전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을 유력한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 있어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형사재판 이후 새로 제출된 증거에 의해 투표 용지, 롤 영수증 제작 등의 실상이 다시 밝혀져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 발주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허위 발주 금액이 과대계상으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허위 발주가 인정되지 않아 공제할 대상이 없는 만큼 어떤 거래가 과대계상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종용 기자 deep@

북극곰처럼… 겨울 바다에 풍덩 5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린 '제33회 해운대 북극곰 축제'에 참가한 시민과 관광객들이 일제히 겨울바다에 뛰어들고 있다. 뉴시스

도로 파손·고장 등 신고 작년 778건 포상금 지급

서울시 '안전신고포상제'

서울시는 '안전신고포상제'를 통해 지난해 총 13만9114건을 접수, 우수 사례 778건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들은 생활 속 위험 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등을 통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전체 신고 건수 중 불법주정차가 5만8212건으로 42%를 차지했다. 이 밖에 도로・보도블록・시설물 파손 등이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 및 제안은 시・자치구 사전심사와 안전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결정됐으며 지난해 우수 43명(20만 원), 장려 735명(3만 원)이 선정됐다.

김기현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로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자가용 타고 출근하다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재판부 "산재보험법 개정… 유족급여·장의비 지급해야"

본인 소유의 자동차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일용직 근로자였던 A 씨는 2017년 11월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한 출근길에 주차된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로 병원에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 씨 유족은 이듬해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정한 옛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부지급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된 산재보험법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에 따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근로복지공단이 적용한 산재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며 "이런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가 없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산재보험법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김종용 기자 deep@

이주열, 금통위원 연임 가능성에 "노코멘트"

김남현의 **왈가왈부**

"과반수가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한은법이 바뀐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네 명의 임기 종료가 오는데 네 명 중에 몇 명이 교체될지는 잘 알 수 없다. 네 명이 다 바뀌는 것을 전제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신년을 맞아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점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다과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네 명의 금융통화위원이 무더기로 교체되면서 통화정책 단절 가능성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네 명이 모두 교체되는 게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것이냐는 연이은 질문에 "금통위원 임명은 대통령 인사권이다. 노코멘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원의 연임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다름 아닌 이주열 총재가 직접 이 같은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이 같은 발언을 빌미로 한은 정책결정에 민감한 채권시장이 반응하기도 했다.

다만, 이 총재 발언이 실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그 스스로도 언급했듯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연임 가능성 발언 왜 나왔나? = 이명박(MB) 대통령 재임 당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위원을 2년간 공석으로 놔두면서 금통위원의 무더기 교체라는 문제가 반복되기 시작했다. 실제 2012년 4월 네 명의 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됐고, 2016년 4월과 올해 4월까지 총 세 번에 걸쳐 무더기로 금통위원이 교체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됐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2018년 3월 13일 한은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한은법에 따르면 제15조 1항은 당연직을 제외한 금통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항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위원의 경우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경우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정했다.

한은 공보관 측은 이 총재 언급을 두고 법상 연임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원론적 답변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총재라는 중량감을 감안한다면 그의 말을 공보관 측 해명 정도로 흘려버리긴 어렵다.

금통위원은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당연직인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위원은 한은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의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있다.

이 같은 추천기관의 추천 절차는 그간 요식행위에 그쳐왔다. 실제 MB 정부 시절인 2011년 9월 한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 추천 금통위원 임명이 장기간 미뤄지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정부 의견을 못 듣고 기다리다가 보니 시일이 걸렸다"고 답했다. 정부가 점지해 주길 기다린 것이냐는 질문엔 "지금까지 관행이 그랬다"고 밝힌 일화는 유명하다. 2014년 5월 함준호 위원 임명 당시에도 은행연합회 고위관계자는 "청와대가 낙점해 주면 절차를 밟을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추천기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결국 이 총재가 청와대와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발언했는지가 관건인 셈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총재 추천 몫에 대해서는 이 총재가 마음을 정하고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총재 추천 인사이자 이 총재가 추천해 금통위원을 역임 중인 이일형 위원을 염두에 둔 발언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한은 역사상 금통위원이 연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우선 대통령이 인사권을 발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가까운 측근 몫으로 활용돼 왔던 자리다. 또, 경제학자라면 한 번쯤 꿈꾸는 자리인 데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라는 점에서 정·관계에서도 노리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금통위원 임명 시즌이면 금통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청와대 앞부터 (한은이 있는) 남대문을 돌아 다시 청와대 앞까지 줄을 선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금통위원 연임 시 인하시기 5월도 추가 = 2일 채권시장은 이 총재 언급을 빌미로 강세장을 연출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통화안정증권(통안채) 2년물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각각 3.3bp(1bp=0.01%포인트)씩 하락해 초장기물(국고채20년~50년물 각각 3bp 하락) 금리 낙폭보다 컸다. 채권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단기물이 더 강했던 셈이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비둘기파 위원인 조동철·신인석 위원들이 연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금통위원 연임으로 통화정책 단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5월도 추가 인하시점으로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올 상반기 중 추가 금리인하가 있다면 2월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왔었다. 금통위원 대거 교체와 국회의원 선거(총선) 이슈가 맞물리면서 2월 이외 시점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1월은 연초와 설 연휴가, 4월은 총선과 금통위원 교체가 겹친다. 5월은 교체된 신임 금통위원들의 첫 금통위다. 3월과 6월은 금통위가 없는 달이다. 실제 1999년 기준금리 결정으로 통화정책이 변경된 후 연초와 설날, 금통위원 교체, 총선이 있던 달에 금리가 변경된 적은 단 3번에 그친다. 이들 중 두 번(2000년 2월, 2011년 1월)은 인상이었고,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이 유일하다.

비슷한 사례로 이주열 총재 연임 결정이 이뤄졌던 2018년 초가 있다. 당시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 총재 교체로 인해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던 인상 속도가 연임으로 빨라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당시 이르면 연임 직후인 2018년 4월, 늦어도 5월엔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했다. 이 총재도 두고두고 당시 인상을 결행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현재 신중하지만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중이다. 2일 이 총재도 "경기와 물가를 보면 완화기조를 가져가야 한다. 금리로 대응할 여력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인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많은 것을 봐야 한다. 물가안정이 주된 목표이긴 하나 금융안정도 중요하다. 경기도 봐야 한다. (추가 인하 시) 효과와 부작용도 있다. 셈법이 복잡하다"며 그야말로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경기에 대해서는 희망 섞인 낙관론을 내놨다. 이 총재는 "올해 미·중 분쟁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 값도 시기를 가늠키 어려우나 올해 중반 정도쯤 가격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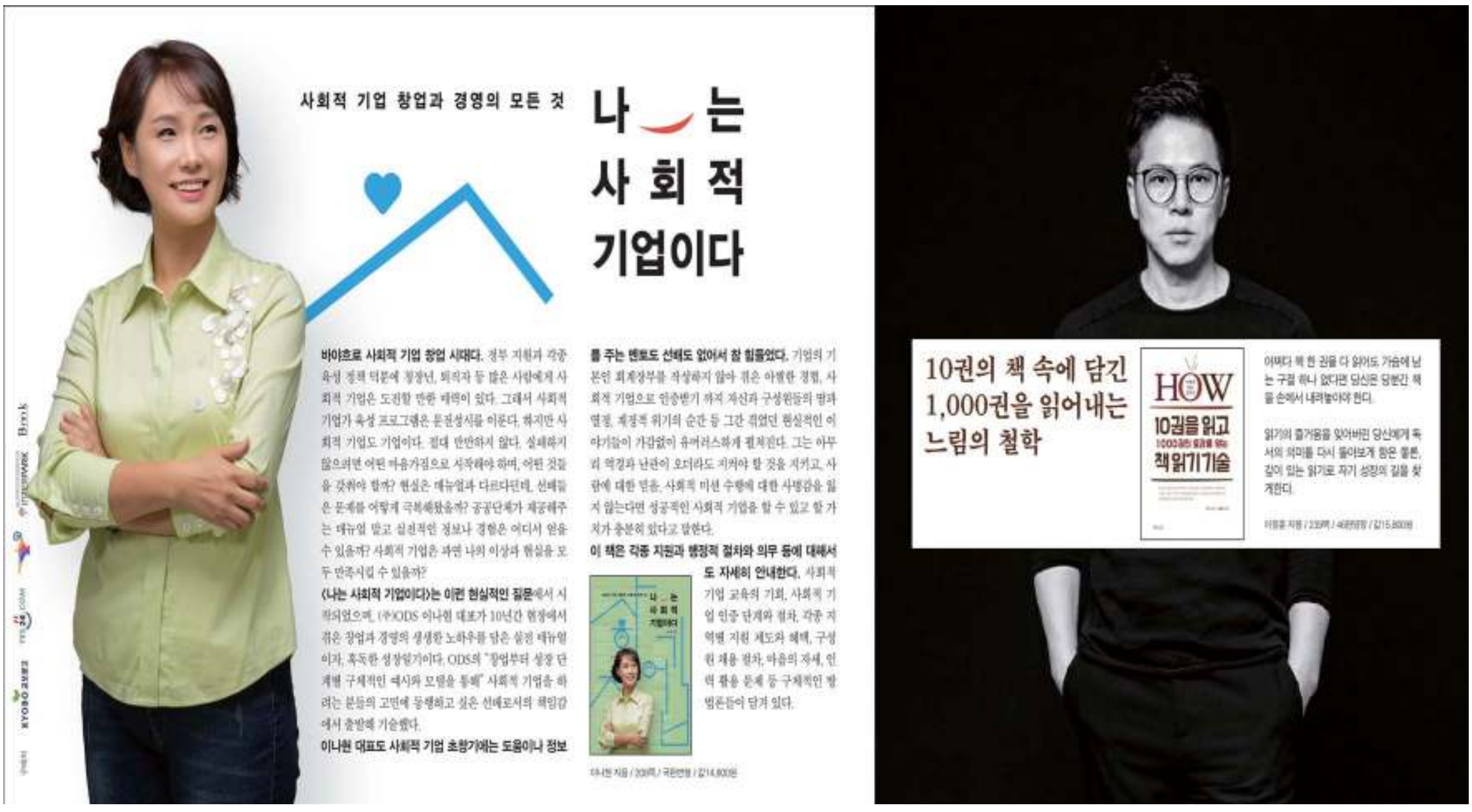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위원 무더기 교체 막기 위해 한은법 '4년 임기 연임 가능' 개정

네 명 임기 종료 임박… 총재 추천 몫 이일형 위원 연임 무게

비둘기파 조동철·신인석 위원 연임 기대감 채권시장 '강세장'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Par5 3Shot 합산

+100yd 더 나간다

1st Shot +30~50yd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30~40yd 세계 최초의 초고반발 우드 + 3rd Shot +30~40yd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205g~ 44% 더 가벼운 세계 최경량 기술 × 최적화 기술 적용

BIG BaNG Light

모든 업체가 뱅골프의 고반발 기술을 따라하고 경량화 기술을 쫓아오지만
이미 뱅골프는 제3의 신기술 - 최적화 기술로 골프를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

PGA 톱 프로처럼 클럽을 만들어 준다면
나도 프로선수 처럼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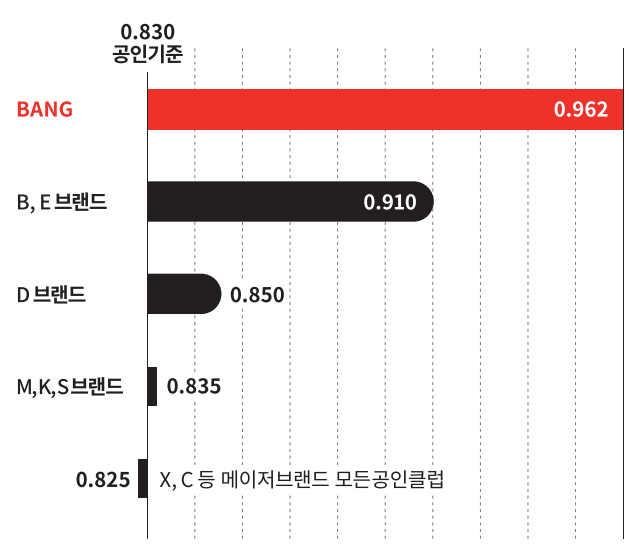
프로 골퍼가 잘 치는 것은 뛰어난 스윙 기술과 최적화된 골프채 덕분입니다.
PGA 톱 프로는 첨단 스윙분석을 거쳐 그 프로에게 최적화된 수십 개의 클럽을 만든 후
그중에서 가장 감이 좋은 것을 골라 씁니다.

스윙기술이 부족해도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이 있는 뱅골프 클럽으로
PGA 프로처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골프채를 만들어준다면 나도 +30yd 더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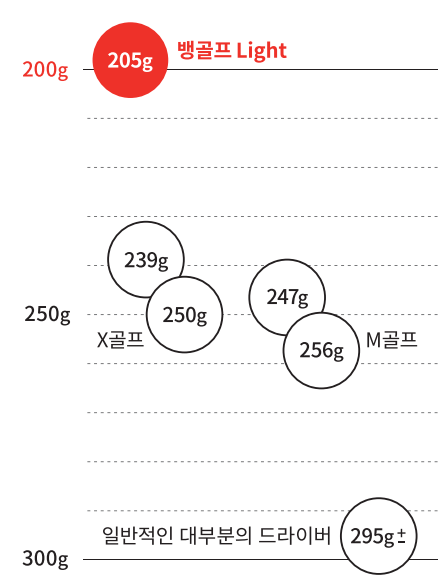
VVIP 고객님께 프로선수와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최적화 기술 적용 및 사용 후 수정 최적화

品格

고반발 기술 격차



경량화 기술 격차



최적화 기술 수준 격차

	BANG Light	타사
드라이버 사양 종류	999,000가지	획일적인 몇가지
드라이버 무게 종류	205g ~ 325g까지 120가지	단일 무게 혹은 몇가지
드라이버 강도 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SR, R, L 등 몇가지
우드/아이언 강도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R 두가지 안팎
아이언 무게(9번 기준)	남 333g 여 312g	남 351g ~ 395g 여 326g ~ 368g
아이언 샤프트 종류	0.335 inch 최초 2~11번까지 번호별 샤프트	대부분 한가지 길이를 번호별로 잘라서 사용
헤드 무게 조정	120가지 헤드 무게로 헤드 교환 납을 사용하지 않음	납을 첨가하여 무게조정
드라이버 100yd 골퍼	스윙웨이트가 A8까지 있어서 누구나 딱 맞는 가벼운 클럽이 있다	무거워서 치기 불편하다

(주)뱅골프코리아 | 대표전화 1544-807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 1층 | www.banggolf.co.kr

"女선장이 뉴스 되지 않는 세상 돼야죠"

'국적선사 첫' 전경옥 선장

승선 11년 만…평균보다 빨라
컨테이너선 전문성 높은 평가
해양대 입학 허용 30년 '첫 캡틴'
"바다, 여성에겐 여전히 좁은 문
기회 박탈·차별적 관행 없어야"

"여성 선장이 나와도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상선이 지난해 12월 26일 전경옥〈사진〉 씨를 국적사 최초 여성 선장으로 임명한 후 전 선장이 밝힌 소감이다. 이번에 임명된 전 선장은 2005년 2월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현대상선에 '3등 항해사'로 입사하며 현재까지 15년간 근무하고 있다. 이후 2006년 2등 항해사, 2008년에는 1등 항해사로 승진했으며, 입사 후 승선 경력만 11년 만에 선장 자리에 올라섰다.

선장은 보통 승선 경력 평균 15년가량을 채워야 오를 수 있는 자리다. 모든 승무원을 지휘·통솔해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박의 안전 운항과 선적화물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리더십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특히 4~6개월을 바다 위에서 보내고 2~4개월의 휴가를 갖는 승선-휴가-승선-휴가의 반복 근무로 가족과 지인도 오랜 기간 볼 수 없는 외로운 직업 가운데 하나다.

전 선장은 입사 15년, 그리고 승선 11년 만에 선장 마크를 달았다. 벌크선 1년 근무 외에 줄곧 컨테이너선만 타며 컨테이너선 전문성을 쌓아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재 전 선장은 중동 항로인 KME노선에 투입된 8600 TEU급 컨테이너선 '현대 커리지호'에 승선 중이다.

전 선장은 "해양대에 여성이 입학한 지 거의 30년 된 시점에 첫 여성 선장이 됐다"며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바다가 여성에게는 여전히 좁은 문이지만 앞으로 성별에 따라 기회 자체를 박탈하거나 차별하는 관행이 깨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 선장의 말처럼 그동안 여성은 배 위에 오르는 일 자체가 어려웠다. 전 세계 선원 140만여 명 가운데 여성은 2%가 채 안 될 정도로 여성 승선은 보기 드물다. 그만큼 여성의 해양 진출은 금기시돼 있었다. 우리나라도 한동안 여성의 바닷길 진출을 법으로 막아왔다. 선원법이 제정된 이래로 여성과 만 15세 미만 남성을 선원으로 고용할 수 없었다. 남녀 차별이라는 구호 속에 1984년 선원법이 개정되면서 여자도 선원이 될 수 있게 됐고, 1991년 한국해양대가 여성 입학을 허용했다. 그리고 여성 입학 허용 30여 년 만에 국적사 최초의 여성 캡틴이 탄생했다. 전 선장은 "향후 대한민국에서 많은 여성 선장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금도 전 선장처럼 캡틴을 꿈꾸는 여학생들이 꾸준히 관련 교육기관에 발을 들이고 있다. 한국해양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해사, 기관사가 될 수 있는 항해계열 전공 입학 여학생 수는 91년 이후 꾸준히 오르면서 현재 11~12%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 선장은 "10년 후에는 더 많은 여성 후배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또 그들이 선장이 된다 해도 더는 기삿거리가 되지 않는 양성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12일에는 고해연 기관장이 현대상선 첫 여성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고 기관장은 2008년 2월 한국해양대 기관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해 현대상선에 3등 기관사로 입사했으며 입사 11년 9개월 만에 기관장으로 발탁됐다.

대한민국 해운업계 사상 최초로 국적선사 첫 여성 선장과 기관장을 임명한 현대상선에는 총 380명의 해상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 선장, 고 기관장을 비롯한 총 8명의 여성 해기사가 재직 중이다.

김기송 기자 kissong@

'2020 삼성 드림클래스 겨울캠프' 개막

5개 대학서 중학생 1600명 참가 22일까지 합숙 교육

3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2020 삼성 드림클래스 겨울캠프' 환영식에서 중학생, 대학생 멘토, 삼성전자 임직원 운영진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3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전국 5개 대학에서 '2020년 삼성 드림클래스 겨울캠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드림클래스에는 읍·면·도서 지역 694개 중학교의 학생 1600명, 대학생 540명이 참가했다.

2012년에 시작한 삼성 드림클래스는 경제적, 지역적으로 교육 여건이 부족한 중학생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멘토로 참가하는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교육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는 교육부와 함께 중학생을 모집했다. 이 중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 소방관, 해양경찰,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495명도 포함됐다. 방학캠프에 참가한 중학생들은 대학생 멘토와 합숙하며 총 150시간 동안 영어·수학·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또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대학 전공 박람회, 진로 멘토링과 음악회 등 문화체험의 기회도 얻는다.

삼성 드림클래스는 교육을 받은 중학생이 대학에 입학해 대학생 멘토로 다시 배움을 전하는 나눔의 선순환도 이루고 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하는 대학생 540명 중 72명이 중학생 시절 삼성 드림클래스에 참여했던 멘토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SK이노 '1% 행복나눔기금' 올해까지 164억 조성

협력사 상생·사회공헌에 97억 집행…맹그로브숲 복원도

SK이노베이션은 '1% 행복나눔기금'이 올해까지 총 163억6000만 원 조성될 예정이며, 이 중 약 97억 원을 협력사 상생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집행했다고 5일 밝혔다.

1% 행복나눔기금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의 기본급 1%를 기부하면 회사도 같은 금액을 기부해 모금하는 방식이다. 2017년 9월 노사가 임단협을 통해 합의해 그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53억8000만 원이 조성됐다. 이 중 회사가 기부한 26억2000만 원은 협력사 구성원을 위한 상생기금으로 지난해 1월과 8월에 울산과 인천에서 각각 전달됐다. 나머지는 울산, 인천 및 서울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총 15개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원에 활용했다. 기금 중 일부는 환경 분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맹그로브숲 복원사업에 사용했다.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은 베트남 짜빈성 인근 약 29헥타르(ha) 부지에 맹그로브 묘목 12만5000여 그루를 식수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산업부 R&D 전략기획단장에 나경환 단국대 산학부총장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전략을 총괄하는 '4기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장'에 나경환〈사진〉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을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은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을 위한 싱크탱크로 2010년 4월 설립됐다.

나 신임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2년 연임이 가능하며 산업부의 R&D 투자와 기획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R&D 정책의 발굴과 제언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나 신임 단장은 청주고와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KAIST에서 기계공학 석사와 생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2년 과학기술처 사무관을 시작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과학기술부 기계소재심의관(이사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6월부터 단국대 산학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서울시,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박애란〈사진〉 변호사를 6일 자로 임명한다고 5일 밝혔다.

신임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공익변호사로 상근하면서 환경문제·산업재해 등 다양한 공익소송과 공익신고 및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현대삼호중공업·협력사 임직원 "경영목표 달성·무재해 기원" 산행

현대삼호중공업과 협력사 임직원들이 4일 전남 무안 승달산에서 올해 경영목표 달성을 다짐하고 있다. 경영목표 달성과 무재해를 기원하기 위한 이번 새해 산행은 목포대 박물관을 출발해 승달산 정상을 돌아 다시 복귀하는 5㎞ 코스에서 진행됐다. 이상균 현대삼호중공업 사장은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동료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올해 매출 4조1800억 원과 수주 42억5000만 달러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정보통신정책실장 김정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승진 △감사부장 김형진 △학생활동지원실장 서지연 △기획평가실장 이환철 △종합·원격교육연수원장 직무대행 진병두 ◇전보 △창의융합교육단장 이정규 △경영기획단장 허경호 △과학문화기획실장 임세진 △과학문화홍보실장 허준영 △과학문화산업기반실장 양수정 △과학문화확산실장 강호영 △창의융합기획실장 김현철 △과학수학교육개발실장 홍옥수 △과학영재육성실장 김명수 △소프트웨어·AI인재육성실장 이현숙 △연수기획팀장 현지영

◆**수출입은행** ◇본부장 리스크관리본부장 이동환 △남북협력본부장 박경순

◆**새마을금고중앙회** ◇부문장 △준법지원부문 조강영 △MG인재개발원 원장 강왈구 △IT부문 김문호 △사회공헌금융부문 이용우 △자금운용부문 김상헌 ◇본부장 △전략기획본부 전성기 △총무본부 심동보 △대외협력홍보본부 김동욱 △리스크관리본부 김호술 △관재계약본부 반영식 △IT부문 IT기획본부 임기철 △IT개발본부 백경섭 △정보보호본부 강창기 △금고경영지원기획본부 박도형 △금고여신금융본부 황길현 △디지털금융본부 강신철 △예금자보호실 박재경 △금융소비자보호본부 장경수 △금융기획본부 이미향 △자금관리본부 위덕현 △대체투자본부 박준철 △공제기획본부 김훈기 △공제지원본부 이종성 △검사기획본부 유인석 △검사감독1본부 김동화 △검사감독2본부 서상민 △검사감독3본부 김종만 △감사본부 조근준 △비서실 강상수 △서울지역본부 김지윤 △부산지역본부 박광제 △대구지역본부 이재설 △인천지역본부 유경진 △광주전남지역본부 정찬호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정인순 △울산경남지역본부 김정신 △경기지역본부 장경준 △강원지역본부 신윤식 △충북지역본부 강명성 △전북지역본부 박혜식 △경북지역본부 김원규 △제주지역본부 김한신

◆**KEB하나은행**〈전보〉 ◇부장 △디지털개발부 계용근 △종합리스크관리부 김병규 △투자전략부 김봉수 △정보보호부 김용찬 △자금세탁방지부 김원호 △인재개발부 김진석 △손님빅데이터센터 김창영 △홍보부 김창현 △IPS부 김학년 △인사부 김한욱 △신용리스크관리부 문홍배 △외환사업지원부 박경은 △GlobalDigital센터 박정운 △직원행복부 배재식 △IT금융개발부 서영석 △신용감리부 송영호 △준법지원부 심우창 △IT시스템운영부 오귀택 △개인여신심사부 유용무 △영업지원부 유지원 △IT기획부 이찬인 △손님투자분석센터 장준영 △증권대행부 전병우 △IT정보개발부 최영민

◆**한화손해보험** ◇임원 선임 △사업총괄 부사장 강성수

◆**웰컴금융그룹** • **웰컴에프앤디㈜**◇이사 승진 △송영주 ICT서비스본부 본부장 • **웰컴저축은행** ◇이사 승진 △유승환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오두환 디지털마케팅본부 본부장

◆**대웅제약** • **대웅제약** △마케팅·영업총괄 부사장 이창재 • **대웅바이오** △부사장 진성곤

◆**화성산업** △토목본부장 신동훈 △재무 임원 장복태 △토목팀장 김홍식 △자금팀장 이문희 △회계팀장 정병진 △화성개발 경리팀장 최환집

부음

▲**김광웅**(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초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씨 별세, **유정희** 씨 남편상, **김재원**(서울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재정**(삼성SDS아메리카 대표변호사) 씨 부친상, **박재범**(US뱅크 상무) 씨 장인상, 김정화(김정화산부인과 원장) 씨 시부상 = 2019년 12월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02-2072-2010

▲**권오유** 씨 별세, **권용욱**(전 KB증권 고객센터장)·**유철**(BM그룹 이사)·**기훈**(메디플랙스 세종병원 신경외과장) 씨 부친상, **김선미**(아시아나항공 차장)·**변영리**(전 경북대 치과대학 조교) 씨 시부상 = 5일,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특1 호실, 발인 7일 오전 8시, 02-6986-4440

▲**허만희**(전 영선종합고등학교 교장) 씨 별세, **허준혁**(사업)·**세연**(SRT 근무) 씨 부친상, **한임택**(특허사무소 근무) 씨 장인상 = 4일, 영광종합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7일 오전 10시, 061-350-8044

▲**황의신** 씨 별세, **방용원**(EY 한영회계법인 부회장)·**경원**(KT 차장)·**경순**·**희숙** 씨 모친상, **정명수**·**박병삼**(KT 법무실장) 씨 장모상 = 5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 발인 7시 오전 5시, 02-3010-2000

▲**윤영기**씨 별세,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현규**(전 동화은행지점장)·**현준**(전 정화폴리테크공업 대표)·**현숙**·**현정** 씨 모친상, **이정구**(전 정화폴리테크공업 회장)·**석기룡**(전 현대엘리베이터 연구소장) 씨 장모상 = 5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8호실, 발인 7일 오전 6시 30분, 031-787-1508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가천대 교수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2020년은 '5G 혁신 원년'

새해의 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떤 찬스를 잡아챌 것인가'가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다양한 기술의 결집이 AI라면, 그것을 언제 어디라도 재빨리 전해주는 고속도로가 5G다. 2020년은 결국 '5G×AI'로 표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깨닫고 경제현장을 더 부지런히 누비면서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

5G(5세대 이동통신)를 사용하면 도대체 어떤 것이 가능해질까. 대용량의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보낼 수 있는 차세대 통신의 용도에 대해 세계가 지혜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조사회사인 가트너에 따르면 정부와 통신 관련 회사가 주체가 되어 아이디어를 모으는 콘테스트가 각국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제조, 교육, 농업, 관광, 의료, 건설, 교통, 물류….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성이 탐색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과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로봇, 드론 등의 기술이 잇달아 꽃을 피우고 있다. 5G와 연결되어 화학반응이 일어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산업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러한 시대 인식이 경영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새해 벽두에 그룹 대표들이 일제히 내놓은 신년사는 나름대로 이를 반영하고 있다.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미국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책임자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에 주목해 2020년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드디어 5G와 융합해 커뮤니케이션과 오락, 더욱이 일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참이다. 우리도 변화의 물결을 타고 혁신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자동차는 커넥트화가 진행되어, PWC컨설팅그룹의 예측으로는 2030년까지 누계로 1600만 대의 5G 대응차가 미국·유럽·중국에서 팔릴 전망이다. 자동차 산업을 큰 기둥으로 삼고 있는 한국은 거기서 어떤 가치를 짜낼 것인가.

게임시장에서는 미국의 유력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참여해 5G의 보급을 노리고 공세를 취한다. 게임대국 한국도 절대로 질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주최 신년회에서 '혁신, 혁신, 혁신'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5G는 작년에 선두에 나선 한국과 중국에 이어 올해는 싱가포르와 태국도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G에 대응한 신형 기종의 출하 증가에 힘입어 올해 세계 스마트폰의 출하 대수는 작년보다 5% 늘어난 14억4000만 대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경제신문사가 최근 발표한 '2020년 히트가 예상되는 아시아의 상품·서비스'에 따르면 통신과 테크놀러지의 진화로 생겨나는 신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중국에서는 얼굴 인증 서비스로서 5G의 본격 도입과 함께 자동판매기와 지하철에서 얼굴 인증 결제의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2019년을 '얼굴인증 원년'으로 지정한 바 있다. 대만에서는 5G를 사용한 e-스포츠가 번창할 전망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모든 서비스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상에서 제공되는 '슈퍼 앱'이 4G보다 최대 100배 빠른 5G를 타고 소비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계는 2020년이 5G에 힘입어 정보통신이 산업과 생활에 본격적으로 융합되는 이른바 '5G 혁신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차세대 이동 서비스(MaaS·CASE), 가정용 로봇, IoT 가전, 스마트폰 의복 시착(試着) 및 주문, VR, 동영상 배신(配信), e-스포츠, 디지털 급여, 신용 스코어, 스마트폰 결제, 협동 로봇,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RPA), AI 농업, 드론, 통신 기지국, 전자부품 및 반도체, 양자컴퓨터, 6G 개발 등 '서비스 폭발'이 점쳐진다.

따라서 새해의 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떤 찬스를 잡아챌 것인가'가 될 것이다. 기업에서는 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디지털 감각을 갖고, 끊임없이 연마하는 문화를 함양하는 조직이 긴요하다. 역시 경쟁력의 원천은 인재다. 밀레니얼과 Z세대로 불리는 인재들의 발상과 행동을 경시하지 않고 그들이 활약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는 것도 생각해 볼 때다.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다양한 기술의 결집이 AI라면, 그것을 언제 어디라도 재빨리 전해주는 고속도로가 5G다. 2020년은 결국 '5G×AI'로 표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깨닫고 경제현장을 더 부지런히 누비면서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 올해야말로 내수, 수출, 생산성 제고 등 경제성장의 3요소를 굳건히 챙겨야 할 귀중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정의 노동과 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사자치의 종언(終焉)

지난해 11월 국회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정쟁을 치르던 와중에 대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조나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소위 집단적 동의)와는 별도로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집단적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종전의 인식과는 배치되는 것이라 향후 많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사관계는 흔히 부부관계에 비유된다.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회의'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외부인이나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노사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외부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인데, 이럴 때에 대비하여 '가족회의'에 해당하는 '집단적 동의 규정'을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 도입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위의 '집단적 동의 규정'은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간의 이해충돌과 갈등을 조정할 툴(tool)로써 도입한 것이다. 이를 '노사자치'또는 '협약자치'라고 하며, 노동법에서 가장 존중하는 가치 중의 하나다. 노동운동의 역사가 가장 오랜 영국이 지금까지 '노사자치(율)주의(voluntarism)'의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대법원 판례는 일견 개별적 권리보호에 방점을 둔 것처럼 보이나, 노사 자치의 원칙을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는 마치 부부간의 문제를 가족회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한 다음, 또다시 부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상한 논리가 된다. 또한 이는 집단적 동의 규정을 도입한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 대법원이 이런 법리를 관철하려면, 종전의 해석대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집단적 동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 그러지 않고 집단적 동의에 더해 개별적 동의까지 요구하게 되면 노동력 활용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져 노동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이러한 노동문제의 '사법화 현상'은 특히 최근 수년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통상임금의 산정범위를 둘러싼 문제를 비롯하여, 근로시간의 산정 문제, 경영성과급에 대한 임금(성) 판단 문제 등등 그러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사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상당수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산정 등과 같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 않더라고 노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시시콜콜한 것들이다. 이런 사안들은 노사가 자기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노동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은 노사 자치의 근본을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사법부의 판단은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식시킨다는 의미에서 물론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고용환경은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일도양단적인 판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사 간의 문제는 명확하게 실정법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지 않고 노사 간에 분쟁이 생길 때마다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안정적 노사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잔 다르크 명언

"사람들은 종종 진실을 말하며 죽임을 당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났으므로."

15세기 전반 영국의 백년전쟁 후기에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적인 소녀. "프랑스를 구하라"는 신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나 샤를 황태자를 도와 앞장서서 싸웠다. 그녀는 오늘 태어났다. 1412~1431.

☆ 고사성어 / 세한송백(歲寒松柏)

"날씨가 추워진 후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에 시듦을 안다[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也]"는 뜻. 역경에 처하여도 지조와 절의를 굽히지 않는 군자의 모습을 말한다. 논어(論語) 자한(子罕)편에 나온다.

☆ 시사상식 / 가마우지 경제(cormorant economy)

우리나라의 수출구조 취약점을 가마우지 낚시에 빗댄 말. 한국이 핵심 부품과 소재 등을 일본에서 수입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구조적 특성상 수출하면 할수록 이득은 정작 일본에 돌아간다는 뜻이다. 낚시꾼이 가마우지 새의 목 아래를 끈으로 묶어 두었다가 새가 먹이를 잡으면 끈을 당겨 먹이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여 목에 걸린 고기를 가로채는 낚시방법에 빗댄 용어다.

☆ 우리말 유래 / 실랑이

옳으니 그르니 하며 남을 못 견디게 구는 짓이란 뜻. 과거 합격자들이 예복을 갖춰 입고 증서를 타러 나갈 때 부르는 구령 '신래(新來)위'에서 온 말. 이 절차를 밟을 때 선배들이 얼굴에 먹을 칠하고 옷가지를 찢고 이리저리로 오라 가라 놀려대던 신임례(新任禮)를 치르던 데서 비롯된 말.

☆ 유머 / 부인의 속내

부인이 남편 관에 매달려 통곡했다. "여보, 나도 따라갈 테니 데려가 줘요!"

관에 매달리다 뚜껑 사이로 머리카락이 끼자 기겁한 부인이 소리쳤다. "뭐예요, 안 갈래요! 평소 내 말을 하나도 안 듣더니 오늘은 왜 내 말을 듣고 그래요!"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이 재 훈 IT중소기업부/yes@

KT의 품격, 구현모 내정자에 달렸다

황창규 KT 회장이 신년 시무식에서 신임 CEO 내정자인 구현모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사장)에 대한 기대를 한껏 드러냈다. '글로벌 1등 기업'을 이끌 리더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황 회장은 구 사장을 지목하며 "뛰어난 역량을 갖춘 CEO 후보자"라고 치켜세웠다. 구 사장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황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CEO 후보로 낙점받았다. 3월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KT의 CEO로 공식 취임한다.

KT는 135년 전통을 지닌 국내 1위 통신 기업이지만 동시에 2018년 서울 아현 화재 때 보인 안전불감증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보수적 조직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매번 수장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나 정치권과 결탁한 부정청탁 등으로 전·현직 고위 임원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인지 KT 전직 임원들이 구 내정자를 향해 "과거와 단절하고,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을 정도다.

실제 KT 전직 임원 모임인 '케이(K)비지니스 포럼'은 새해 벽두부터 구 내정자와 김종구 케이티 이사회 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문에선 △지난 10년간 잘못된 경영관행 혁신 △수익 악화·성장 정체·주가 하락·아현 화재·불법 정치후원금 등에 대한 책임의식과 반성 등을 주문하고 있다.

이들은 구 내정자에게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 기존 조직체제와 결연히 단절하고, 미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KT가 이들의 주문대로 2월 중 조기 주총을 개최해 신임 최고경영자 체제를 조기 출범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사업 결과에 책임 지는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 시스템 정착과 이사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구 내정자가 구태의연한 과거와 단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KT 스스로 외치는 '글로벌 1등 기업'이 되려면 혁신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KT가 11년 만에 배출한 내부 출신 CEO의 품격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논설실장 추창근 | 편집국장 김덕헌

논설실	(02)799-2669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자본시장1부	(02)799-2647	자본시장2부	(02)799-2648	금융부	(02)799-2665	부동산부	(02)799-2637
산업부	(02)799-2644	IT중소기업부	(02)799-2646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뉴스랩부	(02)799-2664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준비된 사람은 행복하다

데스크칼럼

한지운
디지털뉴스룸 에디터

최근 연예 관련 뉴스에서 마법의 키워드로 떠오른 단어는 '포방터 돈가스'와 '양준일'이다. 일단 이들 단어를 다룬 기사는 다른 기사와 비교해 볼 때 조회수부터 남다르다. 남녀 구분도, 특정 연령층도 없을 정도로 세간의 관심이 엄청나다. TV 프로그램에 노출된 음식점이나 인물들의 화제성이 하루를 채 넘기기 어려운 게 보통인데, 이들은 반대로 점점 더 증폭되며 새로운 국면으로 나가는 모습이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소개되어 유명세를 탄 포방터 돈가스는 방송 당시부터 화제를 일으키며 철야 줄서기라는 진풍경을 만들었다. 이후 인근 주민의 항의와 같이 말할 수 없는 여러 사정으로 제주도로 터전을 옮겼지만, 이는 오히려 더 나은 환경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됐다. 얼마 전에는 줄서기 아르바이트가 10만 원에 거래될 정도였으니, 유명세로 따지자면 아마도 현재 우리나라 1등일 거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올 때, 성공이라는 화약은 폭발한다. 돈가스집을 운영하는 부부는 '성실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라는 배금주의적 사고가 절대로 줄 수 없는 교훈과 감동을 줬다. 초밥집을 실패하고 돈가스 장사도 몇 년째 부진했지만, 부부는 더 좋은 맛을 손님에게 전달하기 위해 좋은 재료와 조리법을 연구했고, 밤새 줄을 설 만큼 손님이 늘어난 뒤에도 이런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대신 부부는 돈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에서 행복을 찾았다. 돈가스가 맛있다고 칭찬하는 손님들을 보면서 그들은 돈이 없어서 우울했던 게 아님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내가 하는 일이 맞는 방향이었구나라고 손님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게 행복이었다는 것.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너무 과할 정도로 열띤 응원을 일게 한 한마디였다.

좀 더 신상 화제인 양준일로 가보자. 20대 초반에 데뷔했지만, 조금 알려질 만하자 더 이상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기 어려워진 현실. 그가 '투유 프로젝트-슈가맨3'에서 들려준 당시 갑자기 자취를 감추게 된 사정은 충격적이었다. 이후 한국에서 배척받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아마도 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당시 대세였던 근육질 마초로 스타일을 완전히 바꾼 뒤, 다시 방송을 두드렸지만 결국엔 실패한 가수.

하지만, 20년 동안 철저하게 잊혔다가 다시 나타난 그는 당시 사회의 경직성에 대해 성토하거나 자신을 잊어버린 대중에게 섭섭해하는 것 대신,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에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고마운지에 대해 시간을 들여 천천히 말했다. 그 프로그램은 '정말 열심히 했지만, 기회가 평등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연예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패널들은 맞장구쳤던 방송인데 말이다.

어쨌거나 양준일은 '유튜브 지디'로 1020세대의 주목을 받다가, 한 TV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계기로 50대에 다시 연예계로 돌아왔다. 그에게 보내지는 관심은 1020세대에는 호기심이겠지만, 중년층에는 현실의 삶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20대의 꿈을 대신 이뤄주고 있다는 대리만족일지도 모른다.

놀라운 것은 20년 이상 연예계를 떠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 이미 유료 팬 미팅은 성황리에 끝났고, TV 음악방송 무대에도 섰다. 광고계 블루칩이 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니 이쯤 되면 '양준일 신드롬'이다. 물론, 한때의 관심으로 급하게 떴다가 빠르게 소비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게 중요할까. 그는 행복해 보였다.

포방터 돈가스 부부와 양준일, 이들의 공통점은 다시 기회를 얻었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성실했으며, 남의 탓을 하지 않았고, 꿈을 꺾지 않았다. 노력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고, 실패를 너그러이 용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이기에 이들의 이야기는 성인을 위한 한 편의 감성동화 같기도 하다.

잠깐. 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잊고 있었던 것에 대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2020년을 맞으며 문득 든 생각이다.

goguma@

사설

라임자산 파문 확산, 엄정 수사와 신속 대응을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환매중단 펀드의 대규모 손실 전망이 나오고, 불완전 판매와 함께 판매 사기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곧 검찰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라임의 290개 사모펀드 설정액은 작년말 4조4000억 원으로, 7월보다 1조5000억 원(25.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런'의 상황이다. 지난해 8월 라임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금융감독원 검사와 함께 10월 일부 사모펀드에 대해 환매중단 조치가 취해지면서 불안감이 커진 투자자들이 대거 자금을 빼간 것이다.

대규모 투자손실도 예상된다. 환매중단 펀드의 손실률이 이르면 이달 중순 나올 예정인데, 손실률이 70%를 넘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라임이 손실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점이다. 라임은 2426억 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를 전문운용회사인 미국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IIG)에 투자했는데, 2018년 11월 IIG로부터 자산손실을 통보받고도 1년 동안 계속 투자자를 모았다. 작년 6월에는 무역금융펀드 지분 일부를 다른 싱가포르 운용사에 넘기면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더욱이 IIG는 손실을 숨기고 새로운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다단계 돌려막기인 '폰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IIG는 작년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등록 취소를 당하고 펀드 자산도 동결됐다. 여기에 넣은 투자금은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펀드를 판매 대행한 금융회사는 신한금융투자와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그런데 이들이 원금손실이나 환매 지연 가능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채 불완전 판매했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이 잇따라 제기된다. 사실로 입증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상품 내용이나 위험을 투자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은행들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손실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크게 말썽을 빚었다. 금감원은 DLF 판매 은행들에 80%까지 배상토록 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강도 높은 책임을 추궁했다.

라임 사태의 보다 엄정한 조사와 함께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저금리 추세에 사모펀드 시장은 갈수록 커지는데, 판매와 운용과정이 불투명해 시장은 혼란스럽고 투자자 보호는 허술하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논란도 거듭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3월부터 은행의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고 투자한도 금액도 높이기로 했지만 시장질서 확립의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장 신속한 투자자 손실 대응책 마련이 급하다.

곽도흔의 共有하기

정치경제부 차장

'제주 제2공항' 올해는 결론 내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또 해를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해서든 2019년에는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환경부의 제동에 멈춰섰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이후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다. 제2공항 운영 시 우려되는 조류 충돌 문제와 예정지 인근 동굴 등에 대한 식생·지형조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은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등으로 제시될 수 있고 '부동의' 의견이 제시될 경우 제2공항 건설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초벌 검토지만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제기된 문제점을 전부 검토할 정도로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보완서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의견이 나오면 부족한 부분을 추가 보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국내외 관광객이 늘면서 기존 제주국제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1990년 이후 논의가 시작됐고 2015년 11월 성산읍이 제2공항 건설 입지로 발표되면서 본격화됐다. 2018년 12월부터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그러나 입지 선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국책사업 최초로 타당성 재조사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녹색당 소속 노민규 씨 등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찬성 측은 혼잡한 제주공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2공항이 필요하고 건설과 관광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지금의 제주공항을 확장하면 충분하고 제주 섬 전체의 환경 수용력이 더 많은 관광객을 받기엔 한계에 달했다며 반박한다.

이렇게 갈등을 빚은 게 5년째다. 국회에서 의결된 올해 제2공항 사업비는 국토부가 제출한 공항 건설 업무 지원 2000만 원, 기본설계비 324억 원, 감리비 32억 원 등 356억2000만 원이다.

다만 국회는 부대 의견으로 "국토부는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고려해 예산을 집행한다"고 제시했다.

기자는 국토부를 출입하면서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을 들었다. 결론은 내지 못했다. 제주 여행을 갈 때마다 공항이 혼잡한 모습을 보면 제2공항의 필요성이 커지지만 쓰레기 등이 이미 제주도의 처리 능력을 초과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관광객 확대를 위한 제2공항은 필요 없다는 생각도 든다. 어떻게든 제주 제2공항을 어찌할 것인지 결론을 내야 한다. 올해 안에 그것도 이른 시일 안에.

soqood@

우리말 한 토막

신정과 설날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2020년 달력을 펼쳐서 올 한 해 챙겨야 할 기념일을 표시했다. 2020년은 경사스러운 일이 슬픈 일보다 훨씬 많이 달력에 표시되기를 희망하며 꼼꼼하게 적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력을 살펴보니 양력설인 1일은 '신정', 음력설인 25일은 '설날'로 표시되어 있다. 같은 의미의 설을 두고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

오늘날 우리가 보통 설 또는 설날이라고 부르는 날은 음력 1월 1일로, 음력설이다. 한때 '구정'이라고도 불렸다. 설은 '삼국유사'에도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고유의 풍습이다. 반면 양력설로 일컫는 신정은 새해 첫날인 양력 1월 1일로, 일제강점기 때 생긴 용어이다.

양력 1월 1일을 설로 처음 사용한 시기는 서양으로부터 태양력을 도입한 대한제국 고종 때이지만, 당시 백성들의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쇠온 음력설을 지냈다. 이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 우리의 전통 명절인 설(음력 1월 1일)은 버려야 할 구습이라는 의미로 구정(舊正)이라 부르며 명절로 쇠지 못하게 억압했다. 반면 일본인들이 쇠는 양력 1월 1일을 새롭다는 뜻으로 신정(新正)이라 하고, 이를 명절로 쇠도록 강요했다. 광복 후에도 양력설과 음력설을 이중으로 쇠는 이중과세(二重過歲)가 한동안 지속되었고, 음력설은 공휴일에서도 제외됐었다. 앞서 구정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고유 명절인 설날을 일재의 잔재인 '구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설 또는 설날이라고 해야 적합하다.

오늘날 양력설로 일컫는 '신정'은 새해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며, 음력설인 '설날'은 우리의 전통 명절로 지켜지고 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지만 미처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 달력에 표시해 보는 건 어떨까. 12월의 마지막날 달력을 넘기며 올 한 해 열심히 노력한 당신을 돌이켜볼 수 있을 것이다.

신미라 편집부 교열팀 차장 kleinkind@

KEB하나은행 하나원큐 오픈뱅킹

- 타행 계좌 잔액 조회, **여러 앱 필요 없이 원큐에!**
- 타행 계좌 자금 이체, **수수료 없이 원큐에!**

하나오픈뱅킹 전용 하나원큐 정기예금·적금 출시

하나원큐 앱에서 오픈뱅킹 전용 상품 가입 시
타행 계좌를 출금계좌 신청하면, 더 높은 금리 혜택이!

하나원큐 적 금	기본금리 연 1.8% + 우대금리 연 1.8% = 최대 연 3.6% (세전, 2019.12.18일 기준)
하나원큐 정기예금	기본금리 연 1.35% + 우대금리 연 0.2% + 특별금리 연 0.2% = 최대 연 1.75% (세전, 2019.12.18일 기준)

하나오픈뱅킹 전용 상품 자세히 보기

오픈뱅킹 전용 상품에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참여 대상	KEB하나은행 오픈뱅킹 서비스에서 타행 계좌 등록 후, 오픈뱅킹 전용 상품에 가입한 손님
참여 기간	2019.12.18 ~ 2020.01.31
경 품	LG 올레드TV (1명) / LG스타일러 (2명) /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10명)

하나오픈뱅킹 경품 이벤트 자세히 보기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KEB 하나은행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오픈뱅킹서비스]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 참가은행이 아닌 경우, 본 서비스의 등록 및 이용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고,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KEB하나은행 홈페이지 (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품 지급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 이벤트 당첨 안내 등을 위해 휴대폰 번호, 주소 등 손님의 개인정보를 꼭 확인해주십시오.
※ 당첨 안내 통보 시점에 휴대폰 번호 불명, 수취인 부재,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최초 통보일 기준 1주일 이상 연락 두절 시 당첨은 무효 처리됩니다. ※ 본 이벤트는 은행 및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기조건 충족 또는 당첨 손님 제외
※ 본 홍보물은 2020년 1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광고-5544호(2019.12.20) ※ CC브랜드 191216-0096